

2022 고조선 Conference

근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흥익재단

프 로 그 램

접수 [09:00-09:30]

개회식 [09:30-09:50]

개회사 문치웅(홍익재단 이사장)
행사소개/내빈소개

진행: 박성우(홍익재단)

발표 [10:00-15:50]

사회: 나행주(건국대)

제1발표 [10:00-10:40]

환인·환웅 부정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 전진국(충북대)

제2발표 [10:40-11:20]

이마니시 류의 단군·기자 연구와 문제점 - 조원진(세종대)

제3발표 [11:20-12:00]

일제강점기 일본의 단군 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 오다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점심시간 [12:00-13:30]

제4발표 [13:30-14:10]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5발표 [14:10-14:50]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 선석열(부경대)

휴식 [14:50-15:10]

제6발표 [15:10-15:50]

근대 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 - 윤병모(성신여대)

종합토론 [15:50-16:55]

좌장: 이근우(부경대)

폐회식 [16:55-17:00]

진행: 박성우(홍익재단)

2022 고조선 Conference

근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목차

【제1발표】 환인·환웅 부정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3
▶ 전진국(충북대)	
【제2발표】 이마니시 류의 단군·기자 연구와 문제점	27
▶ 조원진(세종대)	
【제3발표】 일제강점기 일본의 단군 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	49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제4발표】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71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5발표】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109
▶ 선석열(부경대)	
【제6발표】 근대 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	125
▶ 윤병모(성신여대)	

2022 고조선 Conference

일본 근대의 한국 고대사 왜곡

【제4발표】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5발표】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계승성과 하백녀

▶ 선석열(부경대)

【제6발표】 근대 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

▶ 윤병모(성신여대)

4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김성환(경기도박물관)

목 차

1. 머리말
2. 고려시대 古記類의 유통
3. 단군 神異에 대한 변증과 고기
4. 단군 古記類와 <고조선>조의 고기
5. 맺음말

1. 머리말

《삼국유사》〈고조선〉조(이하 〈고조선〉조)에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神異는 ‘古記’를¹⁾ 통해 전해진다. 환인 → 환웅·웅녀 → 단군으로 이어지는 신화가 ‘고기’라는 자료에 채록되었다가 일연에 의해 《삼국유사》에 실렸다. 이후 고기는 신이를 주제로 한 우리 역사를 담은 자료를 대표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러 자료에서 고기가 확인된다. 특히 두 사서에서의 고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다. 이들 자료에서의 고기가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지부터 서명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고기》에 두 사서에서의 고기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편찬 시기는 어떤지 등에 대한 문

1) 이 글에서의 ‘고기’가 ‘옛 기록’의 보통명사를 가리킬 경우에는 ‘고기’, 서명을 지칭할 경우에는 《고기》로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제가 거론되었다. ‘옛 기록’의 범칭이라면 두 사서에서의 고기가 일정한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각 사서에서의 고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사서에서의 해동고기, 삼한고기, 본국고기,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 鄉古記 등을 비롯해서 諸古記로도 불린 여러 종류의 고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다기한 이해를 보여 全體像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다.²⁾

출생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단군전승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승 대부분은 <고조선> 조의 고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신이라는 외피에 둘러싸인 황탄함에 대한 비난은 오롯이 고기가 떠안았고, 합리적인 이해라는 성리학자들의 명분을 위해 고기에 실린 신이들이 변증을 통해 재해석되었다. 神人이 檀木 아래로 내려와 國人的 추대로 임금이 되었다거나(《응제시》 유형), 환인·환웅·단군을 3대 부계 계보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환인을 중심으로 환웅과 단군을 형제로 설정한다거나(《동국여지승람》 유형), 환인의 성격에 대한 제석이라는 분주를 桓國 帝釋으로 파악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³⁾ 이 경우들에도 그 전거는 고기에 있었다. 단군전승의 전거로서 고기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변증을 통해 전승의 합리적인 인식을 하려는 시도는 권근(1352~1409)에게서부터 확인된다.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고기의 단군 御國 1500년, 《제왕운기》의 享國 1028년, <본기>의 理 1038년을 고조선(단군조선)의 역년으로 파악한 것이다.⁴⁾ 이런 접근은 단군의 신이를 신고 있는 고기로 확대되었다. 고기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18세기 초부터로 4백여년의 연구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변증을 통한 비판적인 검토가 연구의 주된 흐름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는 그 연구 성과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에게 고조선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고기의 가치를

2) 《삼국유사》의 고기에 대한 검토는 주로 典據論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삼국사기》에서의 고기와 더불어 진행되었는데, 이강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강래, 1997, 『三國史記 典據論』; 이강래,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이강래, 2021, 『한국 고대의 시선과 시각』. 또 전덕재는 《삼국사기》의 원전론을 다루면서 고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전덕재, 2021, 『삼국사기 잡지 열전의 원전과 편찬』.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한 검토는 그 중심에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고기에 대한 검토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전체상, 두 책 또는 각각의 책에서 인용된 고기의 유기적인 관계에 유의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성과는 위의 연구에서 연구사 정리로 대체한다.

3) 김성환, 1999,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 85~112쪽(김성환, 2002,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재수록)

4) 《양촌집》 권1, 응제시, 命題, 始古開關東夷主.

평가절하하는 논리의 근거로 역이용되기도 했다.⁵⁾ 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재비판과 함께 고기의 실체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려는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대체로 고기가 자의 그대로 ‘옛 기록’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는 견해와 서명으로서의 《고기》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또 후자의 경우에는 신라 또는 고려시대에 찬술된 《해동고기》, 《삼한고기》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⁶⁾

현재적인 입장에서 단군전승을 전하는 원전으로서 《위서》, 《고기》, 《檀君本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증적인 연구 성과로 고려 초부터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한 갈래의 역사계승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⁷⁾ 물론 고기와 《단군본기》 등의 자료가 관찬이 아니어서 한계 또한 분명하지만,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 움직임은 확인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조선 역사를 전하는 고기와 《단군본기》 등에 대한 실체에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기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시대에 ‘고기’의 유통 환경에 유의하고자 한다. 다양하게 유통되었던 古記類에서 단군 고기류, 거기에서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한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조선후기에 변증을 통해 진행된 단군 신이를 중심으로 한 고기의 연구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의 연구자들이 고기에 실린 신이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산삭하지 못한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옛 기록’의 범칭이라는 古記論의 측면에서 <고조선> 조 고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신이를 전하는 고기의 일정한 흐름에서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한 위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한 성격과 단군전승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질정을 빈다.

5) 최초의 시도는 19세기말부터 확인되고 1920년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 5-3; 白鳥庫吉(a),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白鳥庫吉(b), 1894, 「朝鮮の古傳説考」 『史學雜誌』 5-12; 小田省吾, 1926,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2;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6) 《고기》는 11세기 전반부터 12세기 중반 사이에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작자 미상의 史書로 조선후기까지 두루 유통되었다고도 한다. 김상현, 2014,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7) 박대제,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1-31쪽; 박대제, 2015, 「檀君紀元和 古記」 『한국사학보』 61, 1-46쪽; 박대제, 2022,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논총』 94, 153-187쪽.

2. 고려시대 古記類의 유통

896년 고려 태조의 아버지인 용건이 궁예에게 귀부하면서 밝힌 “조선·숙신·변한의 땅”을 영역으로 한 국가 건설에서⁸⁾ 고려의 조선에 대한 역사계승성은 이미 천명되어 있었다. 또 《삼국사기》찬자들은 평양에서의 단군과 관련한 사실을 《삼국사기》에 실었다.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땅 [宅]인데, 혹은 왕의 도읍을 王險이라고 한다”⁹⁾ 분주 형식의 서술이다. 평양이 왕검과 관련한 유서 깊은 곳이라는 이해가 12세기 중반 이전부터 평양 일대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¹⁰⁾ 특히 “仙人王儉之宅”에서의 ‘宅’은 뒤의 “王之都王險”에서의 ‘都’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어 <고조선> 조의 평양성과 동일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 전거 또한 고기류로 추측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王之都王險”에 대한 《삼국사기》찬자의 해석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은 《사기》조선열전의 “滿亡命…稍役屬朝鮮蠻夷及故齊燕亡命者 王之 都王險”이 원래의 것으로¹¹⁾ 《삼국사기》의 기록은 두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찬자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왕의 도읍을 왕험이라고 한다”고 해석한 것은 앞서의 선인왕검의 땅[宅]을 의식한 것이다. 여기서 ‘왕험’은 《삼국사기》지리지에서 평양의 옛 지명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지명이 아니라 선인 ‘왕검’에서 유래하여 도읍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건국 직전부터 확인되는 조선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고기, 《단군본기》 등의 것과 같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즉 구려평양선인을 모셨던 서경에서의 묘청 난을¹²⁾ 진압한 직후 편찬된 《삼국사기》에서조차 그곳에서 선인왕검부터의 유래를 실었던 것은 고기류에서 전해지며 신이에 둘러싸인 고조선의 실체를 유교적 합리주의인식을 앞세워 완전히 방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기는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이전에 우리 역사를 수록한 사서의 대표

8) 《고려사》 권1, 태조 총서.

9)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2월.

10) 김성환, 2000,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연구』 3, 107~136쪽.

11) 《사기》 권115, 열전55, 조선. 《삼국유사》에서도 《전한서》 조선열전을 인용하여 《사기》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위만조선.

12) 《고려사》 권127, 열전40, 묘청.

적인 위상을 가진다. 그것이 단일서명이든, 여러 종류의 고기이든, ‘옛 기록’을 지칭하는 범칭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단일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고기》가 될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고기류가 될 것이다. 후자에도 몇 종류의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서 고기는 중국사서와 비교되는 위치에 있다. 고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부식의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된다. 그는 국왕 인종의 말을 빌려서 고기는 “문자가 고졸하고 사적도 빠진 것이 많아 군왕의 선악과 신하의 忠邪, 국가의 안위와 인민의 치란을 모두 들추어내어 권계를 삼을 수 없다”고 했다.¹³⁾ 고기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후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고기가 《삼국사기》의 편찬에 이용된 후 그 맥은 《삼국유사》에 이어졌다. 사실 고기에 대한 기록 역시 두 사서에서의¹⁴⁾ 것을 제외하면 그 사례들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서를 통한 고기는 이후의 역사편찬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고려 이전의 역사를 실은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록을 제외하고 《삼국사기》편찬 이전의 사서로는 고려 초의 《삼국사》 등이 확인되는데,¹⁵⁾ 이들 사서의 편찬에도 고기는 중요한 자료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삼

13) 《동문선》 권44, 表箋, 진삼국사기표.

14) 사서로서 《삼국유사》에 대한 검토는 이강래, 2005, 「『三國遺事』의 史書의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0, 287~350쪽(이강래, 2021, 위의 책 재수록) 참조. 조선왕조실록에는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 그 서명으로 《三國遺事》(1회,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三國遺史》(2회,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慶昌府尹李先齊上書; 《성종실록》 권200, 성종 18년 2월 경진(10일) 同知事金宗直啓), 《三國史》(1회, 《중종실록》 권27, 중종 11년 12월 병진(10일) 韓山郡守孫世雍上疏)가 확인된다. 이중에 《三國遺史》의 경우는 단순한 오기이기보다 《삼국유사》를 사서로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개작으로 보인다. 《三國史》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5) 현종 때 황주랑의 《칠대사적》 36권(《고려사》 권95, 열전8, 황주랑), 문종 때 박인량의 《고금록》과 《수이전》, 예종 때 삼한 이래의 事跡을 실었을 《편년통제속편》(《고려사》 권121, 열전34, 홍관; 《고려사절요》 권11, 예종 11년 11월), 홍관이 찬술한 《世紀》와 《해동비록》(《제왕운기》 권하, 본조군왕세계연대) 등이 있다. 《칠대사적》을 《칠대실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事跡과 實錄은 다르다. 《칠대사적》 36권은 《고려사》의 기록대로 거란의 침입으로 실록이 불탔기 때문에 태조부터 목종까지의 사적을 찾아내고 가려서 정리한 것이다. 《고려사》 권95, 열전8, 황주랑. 김갑동, 2019, 「고려의 7대사적과 태조실록」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157~186쪽. 《편년통제》에 대해서는 예종 때 활발한 송과의 교섭과 문물 수입 등을 참고할 때, 송 章衡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사절요》에서 삼한 이래의 사적(사실)을 수집해서 續編을 바치라는 왕명이 있었다는 것은 송의 《편년통제》에 대한 속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世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편년통제속편》에서 고려 역사를 서술한 편목이라는 견해가 있다. 박대재, 2022, 위의 논문, 159쪽. 홍관은 또 왕명으로 李軌·許之奇·朴昇中·金富侁·尹譜 등과 음양술에 관한 책

국사기》를 제외하고는 전하지 않거나 逸文만 전해져 그 성격은 물론, 고려 전기의 역사편찬의 경향을 검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¹⁶⁾ 이들 중에 《삼국사기》 편찬에 이용된 것들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서 서명이 거론된 국내자료로는 최치원의 《제왕연대력》과 《최치원문집》 및 〈난랑비〉, 김대문의 《계림잡전》과 《화랑세기》, 고려 태조의 〈장의사재문〉, 김장청의 《김유신행록》(10권) 등이 있다. 이들 자료들은 일단 고기와 다른 위치에 있다. 최소한 인종과 김부식의 지적대로 “문자가 고졸하지도, 사적이 빠진 것도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자료들에 거친 글들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라 왕호에 대한 김부식의 사론에서 고기에 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에서 거서간 등 신라 고유이름을 왕으로 개작한 것을 비판했다. 최치원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말이 천박하고 촌스러워 부를만한 것이 못된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좌전》과 《한서》에서 초나라와 흉노의 왕호인 穀於菟와 撐犁孤塗를 남겨둔 예에 따라 신라의 방언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¹⁷⁾ 당대의 칭호를 그대로 서술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신라의 고유 왕호를 〈신라본기〉에 반영하고, 김대문의 《계림잡전》을 인용해서 그 유래를 본문과 分註로 설명했다.¹⁸⁾ 이를 통해 최소한 《삼국사기》에서 서명이 밝혀져 있는 국내자료는 고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거기에 다소 土風과 讖說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용

을 논변했던 《海東秘錄》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다. 《고려사》권121, 열전34, 흥관.

16) 《삼국사기》 편찬 이후 《삼국유사》 찬술 이전에는 의종 때 김관의가 찬술한 《편년통록》과 《왕대종록》, 고종 때 각훈의 《해동고승전》, 시기와 찬자를 알 수 없는 《왕대종록》 등이 확인된다.

1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論曰. 이에 대해서는 土風에 대한 《삼국사기》 편찬자의 편사원칙이 담겼다는 견해가 있다.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53~54쪽. 이것은 확대해서 중국사서와 이에 대응하는 국내자료로서 고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1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원년 3월; 유리이사금 원년 9월;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원년 5월. 그는 《계림잡전》을 인용하여 신라의 불교 수용과 관련한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한 신이도 서술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5년. 《계림잡전》에는 신라의 神異와 方言이 수록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李基白, 1978, 「金大問과 그의 史學」 『歷史學報』 77, 역사학회, 2~8쪽.

19) 고구려 멸망과 관련해서는 가언충의 말을 빌려 “900년이 되기 전에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고구려비기》의 기록을 본문에 실기도 했다.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8년 2월.

인될 수 있었다.²⁰⁾ 그 자료들은 蕪拙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고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사서에서는 고기로 특정된 자료 이외에 고기에 포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상당하다. ‘고기’를 드러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삼국사기》에서는 앞에 그 특성을 설명하는 관칭이 덧붙지 않은 고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해동과 삼한을 덧붙인 해동고기, 삼한고기도 인용되었다. 삼국과 관련해서는 신라고기만 확인되지만, 본국고기로 인용된 백제고기와 고려고기도 있었다.²¹⁾ 이들은 고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해동고기, 삼한고기 등을 고기의 원래 서명으로 보기도 한다. 해동·삼한이 我邦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들은 삼국을 아우르는 범위를 가진 문헌 또는 기록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신라고기 등의 각국 고기는 해동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구성하는 하위체제로 보기도 한다.²²⁾ 그런데 諸古記의 존재는²³⁾ 고기류를 상정하게 한다.

고기가 ‘옛 기록’의 범칭일지, 서명일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부터 그 견해가 갈려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古人記錄’이라는 용례가 있다. 《삼국사기》찬자는 고구려 지리지를 서술하면서 주몽에서 보장왕까지의 도읍 변천과 역년을 ‘고인기록’을 통해 실었다. “건국부터 장수왕 15년 이전까지 국내성 425년, 장수왕 15년부터 평원왕 28년 이전까지 평양 156년, 평원왕 28년부터 보장왕 27년까지 장안성 83년”이 그것이다.²⁴⁾ ‘고인기록’은 고기와 같은 수준의 사료였다.²⁵⁾ ‘古史’도 이와 비교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영양왕 11년(600) 태학박사 이문진이 왕명으로 앞서 편찬된 백여권의 《유기》를 산정하여 새로운 사서인 《신집》 5권을 편찬

20) 이규보의 말을 빌린 것이지만 “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책이어서 아주 이상한 일로 후 세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김부식의 생각을 감안할 때(《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을시, 동명왕편), 신라 고유 왕호와 관련한 토풍은 괴력난신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1) 본국고기를 이에 해당하는 백제와 고구려에 연결시키지 않고 我邦의 古記로 검토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강래, 1997, 「三國史記와 古記」 『三國史記 典據論』 및 전덕재, 2018, 「고구려본기의 원전과 편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참조. 전덕재는 삼한고기 역시 ‘아방의 고기’로 파악한 반면에 해동고기는 서명으로 파악하였다.

22) 김상현, 2014, 위의 논문, 291~294쪽.

2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7월.

24)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그리고 ‘或云’이라는 형식으로 고국원왕 13년(343) 서경인 평양 동황성으로 옮겼다는 기록을 소개하면서 ‘혹운’의 이설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25) 고기를 ‘古人記錄’과 관련해서 고대인이 지은 여러 책의 총칭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강경구, 1997, 『삼국사기 원전 연구』, 375~384쪽.

했다. 이때 《유기》는 ‘고사’로 지칭되었다. 《유기》나 ‘고사’ 모두 《신집》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의자왕에 대한 사론에서 《삼국사기》 편찬자는 “백제와 고구려는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는 ‘고사’의 기록을 인용했다.²⁶⁾ 이때의 ‘고사’도 《유기》를 지칭할 수 있다면, 고기 역시 ‘고사’와 같이 특정 서명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고인기록’과는 반대인 후자의 사례이다.

즉 고사인 《유기》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을 실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백제시조가 “혹은 동명이라하고 혹은 優臺라고 한다”는 해동고기의 기록과²⁷⁾ 비교된다. 고사 = 유기 = 해동고기라는 등식도 성립할 수 있겠지만, 주목할 점은 주몽이 아닌 백제시조 東明說은 부여계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북부여〉조의 고기 기록 역시 부여계 신화일 수 있고, 부루와 주몽 관련한 신화는 후대에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구려〉조에서의 《단군기》는 〈북부여〉조의 고기보다 늦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기는 거칠고 불완전한 사서로 여겨졌지만,²⁸⁾ 《삼국사기》 편찬에 주된 사료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사서에서의 잘못된 기록을 보정하는데 주요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에서 그 가치가 여실히 드러난다. 고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 〈진삼국사기표〉에서 밝혀져 있는 인종의 고기에 대한 평가와 다른 양상이다.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는 고기의 다소 거친 기록을 산삭하는 작업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규정했던 고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서명과 저자가 밝혀져 있지 못하고, 고기라는 이름으로 인용되며 중국사서와 비교되는 국내에서 찬술된 사서” 정도만 이해가 가능하다. 거기에 다소의 토풍, 괴력난신이 섞여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서 고기는 인용사례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6)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왕왕 11년 1월;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7)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28) 고기는 중국에 대한 고려국내의 고유자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삼국에 관한 미흡한 사서였다고 한다. 이강래, 1992, 「舊三國史論에 대한 제문제-특히 《三國史記》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 232쪽. 那珂通世는 고기를 삼국시대에 찬술된 사서의 범칭으로 파악하여 신라의 《국사》,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을 《고기》와 《古典記》의 예로 들었고, 《삼국사기》에서 인용된 백제고기는 《일본서기》에서 확인되는 백제 3서를 가리킨다고 했다. 또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은 삼국의 고기에 수록된 내용을 편년으로 묶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 고기가 《삼국사기》 편찬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那珂通世, 위의 논문.

먼저 본기의 본문에 인용되면서 중국 및 국내문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서기》의 편찬자인 박사 고흥이 다른 책에 나타나지 않고 고기에서만 전해지고 있음을 밝혀²⁹⁾ 백제의 역사편찬에 대한 사실을 전한 것은 그 사례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분주 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문과 다른 異說을 소개하거나,³⁰⁾ 중국문헌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는 역할을 했다.³¹⁾ 특히 후자의 경우에 《삼국사기》 편찬자는 중국사서와 비교하여 언제나 고기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세 번째, 志의 편찬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기록을 서술하는데 중국사서와 함께 주된 사료로 사용되었다. 제사지에서는 신라와 달리 고구려·백제 제사와 제례가 분명치 못해 중국사서와 함께 고기의 기록을 실었다.³²⁾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고구려와 백제의 관직에 대해서도 고기는 중국사서와 함께 주된 사료였다.³³⁾ 악지에서는 고기를 인용해서 괴력난신의 만파식적 설화와³⁴⁾ 신문왕政明王 9년 신촌에서의 잔치 및 음악 연주에 대한 기록을 실었다.³⁵⁾ 지리지에서 고기는 고구려의 도읍과 관련해서 중국사서와의 비교를 위해 두 차례 인용되었다. 우선 첫도읍인 흘승골성과 졸본이 같은 곳을 증명하기 위해 《통전》과 함께 인용되었고, 평양성과 장안을 같은 곳으로 본 《당서》와 달리 평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했다는 고기의 기록을 함께 소개했다. 이때 《삼국사기》 편찬자의 입장은 어느 쪽도 따르지 않았다.³⁶⁾

29)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30년 11월.

30)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儒禮尼師今 1년 10월; 권11, 신라본기5, 현강왕 5년 3월; 권41, 열전1, 김유신 상.

3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4년 1월.;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7월.;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24년 6월;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8년 10월.

32)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고구려의 제사는 중국사서로 《후한서》·《북사》·《양서》·《당서》를 인용해서 동맹을 비롯해서 5건의 기록을 실었는데, 국내사서로는 고기만 인용해서 5건을 실었다. 백제의 제사는 《책부원구》의 기록만을 실었지만, 고기에서는 천지와 시조묘 제사를 실었다.

33)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34)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조에서는 전거의 제시 없이 만파식적에 관한 설화를 신고 있는데, 《삼국사기》악지의 사례로 그 전거가 고기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강래, 2021,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 『한국 고대의 시선과 시각』, 295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고기 기록에 대한 공유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이다. 반면에 《삼국유사》〈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조의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가 〈대산오만진신〉조에서 고기로 지칭되고 있어 고기가 특정자료에 대한 代稱으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강래, 1997, 「三國遺事 引用 古記의 性格」 『三國史記 典據論』 참조.

35) 《삼국사기》 권32, 잡지1, 樂. 신라고기를 인용해서 거문고의 고구려 전래 사실과 신라에서의 제작, 가야금의 유래와 신라 전래도 신고 있다.

36)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고려시대에는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범위와 달리 고기류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름 또한 고기라고만 한 것이 있고, 그에 준하는 고기류가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서의 古典記, 雜傳記도 고기류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규보가 缶溪縣客舍를 시제로 지은 시에서 인용한 ‘(부계)縣古記’는 그중에 한 예라고 할 것이다.³⁷⁾ 《해동고승전》에서도 삼국의 불교 전래와 관련해서 고기가 세 차례 인용되고 있다. 〈석마라난타〉조에서는 고기와 함께 《耆老記》라는 자료를 통해 백제를 건국한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를 避流와 恩祖로 기록했다.³⁸⁾ 여기서의 《기로그》 또한 넓은 범위에서 고기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자(1188~1260)는 《보한집》에서 俗傳인 문곡성과 관련한 강강찬의 출생담을 소개했는데, 그것은 상국 임유(1149~1212)의 집에 있던 기록을 실은 것이다.³⁹⁾ 이들도 ‘고기’라는 명칭을 가지지 않았지만, 고기류에 포함할 수 있다. 天頤(고려 고종)의 《호산록》에서 신라고기, 《삼국유사》 찬술 이후이지만 민지(1248~1326)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에서 신라고기, 了圓(고려 충혜왕)의 《법화영험전》에서 ‘계림고기’도 확인된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本史로 하는 遺事의 성격을 가진다.⁴⁰⁾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는 그대로도 불렀지만,⁴¹⁾ 《삼국사》·《국사》·《三國本史》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서 이해되고 있는 고기의 전제가 《삼국유사》에도 일정하게 관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구삼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는 《前三國史》도 확인되고 있어⁴²⁾ 《삼국사》·《국사》 등이 모두 《삼국사기》를 가리킨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삼국유사》 찬술에 《구삼국사》와 《삼국사기》가 함께 이용되었다면,⁴³⁾ 세 사서에서의 고기에 대한 이해와 정보도 공유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유통되고 있던 고기에 담긴 신이

37) 《동국이상국전집》 권12, 고을시, 缶溪縣客舍 次韻板上諸公詩.

38) 《해동고승전》 권1, 유통1, 順道; 釋摩羅難陀; 釋阿道.

39) 《보한집》 권상, 姜仁憲公邯贊. 이 설화는 김태현의 《동국문감》에도 실렸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 인물, 門下侍中仁憲公 姜邯贊.

40) 이강래, 2005, 위의 논문; 남동신, 2007,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41) 《삼국유사》 권3, 기이2, 南扶餘·前百濟·北扶餘.

42) 《삼국유사》 권5, 피은8, 信忠掛冠. 《대각국사문집》에서는 《海東三國史》가 확인된다.

43) 이규보는 오세문이 지은 삼백운시를 차운하면서 분주에서 《三國史》를 인용해서 東京에 蛟川이 있다고 했다. 《동국이상국전집》 권5, 고을시, 次韻吳東閣世文呈誥院諸學士三百韻詩.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蛟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규보가 〈동명왕편〉에서 이야기한 《구삼국사》와 이를 동일한 사서로 파악하기도 한다. 또 거기서는 〈新羅記〉, 〈新羅櫛記〉도 인용되고 있다.

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기가 전거로 인용된 《삼국사기》의 만파식적과 고기가 전거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기의 신이사적을 담았을 《삼국유사》의 사례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삼국유사》에서도 고기류를 인용해서 여러 신이한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그 인용사례는 《삼국사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삼국유사》 찬술에서 보다 다양한 고기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편에서는 자료의 이용에서 정제되지 못한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기가 인용된 곳은 본문이 10곳, 분주가 6곳, 본문과 분주에서 함께 인용된 곳이 1곳이다. 명칭에서는 고기가 10회,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가 각 1회, 향고기 1회, 寺中古記 2회, 寺中所傳古記 1회이다. 그런데 〈황룡사구층탑〉에서 확인되는 寺中記는 사중고기로 파악된다. 또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대산오만진신〉에서는 고기와 함께 ‘記云’이라 하여 ‘記’가 분주의 전거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고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기는 20항목에서 인용되었고, 그 내용은 고기가 12항목, 각국 고기가 3항목, 향고기 1항목, 사중고기 3회, 사중소전고기 1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고기를 특정하지 않고 인용했거나, 특정 자료를 인용하고 뒤에서 이를 고기로 부르기도 해서 고기의 인용 양상은 훨씬 복잡하다.⁴⁴⁾

앞에 관청을 붙인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고기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고기가 실고 있는 내용의 시대와 지역 범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해동고기와 삼한고기는 《삼국유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는 《삼국사기》에서처럼 모두 확인되는데 삼국의 각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은 문헌 또는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황룡사구층탑〉에서의 사중고기는 “황룡사에서 전해지는 또는 황룡사와 관련된 고기”, 〈대산월정사오류성중〉과 〈영취사〉에서의 사중소전고기와 사중고기는 월정사와 영취사에서 전해지는 또는 이와 관련된 고기 정도로 이해된다. 또 〈월성대왕〉과 〈황룡사장륙〉에 인용된 寺記, 〈명랑신인〉에서의 寺本記, 〈대성효이세부모〉에서의 寺中有記도⁴⁵⁾ 사중고기와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⁴⁶⁾

44) 《삼국유사》〈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조의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가 〈대산오만진신〉조에서 고기로 지칭되고 있어 고기가 특정자료에 대한 代稱으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강래, 1997, 「三國遺事 引用 古記의 性格」 『三國史記 典據論』 참조.

45) 《삼국유사》권2, 기이2, 元聖大王; 권3, 탑상4, 皇龍寺丈六; 권5, 신주6, 明朗神印; 효선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46) 하지만 靈鷲寺記, 白金光寺本記 등은 구체적인 자료명이 제시되어 있어 이들과 구분되고 있다. 《삼국유사》권5, 신주6, 明朗神印; 피은8, 朗智乘雲 普賢樹.

향고기는 《동국이상국전집》에서의 ‘현고기’와 비교할 수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중국문헌과 비교되는 국내문헌을 가리킨다.⁴⁷⁾ 이것은 鄉記, 鄉傳, 鄉諺 등과도⁴⁸⁾ 일정하게 통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이 新羅別記 또는 新羅古傳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⁴⁹⁾ ‘향’은 중국과 상대되는 국내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⁵⁰⁾ 이런 점에서 향고기는 해동고기, 삼한고기와 비교될 수 있다. 이때 신라별기와 신라고전은 신라본기 및 신라고기와 다른 자료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기류로서의 향전은 특정 고문서 또는 고기와도 구분되었다. 《삼국유사》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는 〈백월산양성성도기〉를 주된 자료로 이용해서 구성되었다.⁵¹⁾ 그런 가운데 향전과 고기의 이설이 〈백월산양성성도기〉와 비교하여 잘못임을 지적했다. 여기에서도 향전과 고기, 〈백월산양성성도기〉는 다른 자료였다.⁵²⁾

《삼국유사》찬술에서는 ‘古本’이라는 자료도 8곳에서 이용되었다. 고본은 분주에서 주로 잘못된 이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의상과 원효 범사의 관음보살 친견과 범일의 굴산사 창건에 대해 실고 있는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에서는 고본에서 범일의 사적을 먼저 실고 의상과 원효의 사적을 그 뒤에 실은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삼국유사》에서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⁵³⁾ 이 고본 역시 고기의 한 종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삼국유사》에서의 고본은 연대관에서 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기의 연대관에 대한 《삼국유사》의 흐름과 같다.⁵⁴⁾

47)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武王法敏.

48) 《삼국유사》 권1, 기이1, 太宗春秋公.

49) 《삼국유사》 권1, 기이1, 善德王知幾三事 및 太宗春秋公; 권3, 탐상4, 皇龍寺丈六; 권5, 피은8, 信忠掛冠.

50) 그렇다고 鄉傳과 古傳이 항상 같은 문헌을 지칭하지도 않았다. 《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조에서는 古鄉傳과 寺中有記, 古傳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자료를 지칭한다. 《삼국유사》 권5, 효선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51) 《삼국유사》 권3, 탐상4, 南白月二聖努 勝夫得怛怛朴朴.

52) 《삼국유사》에서는 또 〈金堂主彌勒尊像後記〉(《삼국유사》 권3, 탐상4, 南月山), 〈五臺山文殊寺石塔記〉(탐상4, 五臺山文殊寺石塔記), 〈關東楓嶽鉢淵藪石記〉(권4, 의해5, 關東楓嶽鉢淵藪石記) 등의 불교 관련 고문서류와 지방의 고문서류로 청도군의 都田帳傳인 〈淸道郡司籍〉(권4, 의해5, 寶壤梨木), 〈郡中古籍裨補記〉(의해5, 寶壤梨木), 〈雲門寺古傳諸寺納田記〉(권1, 기이1, 伊西國), 이씨 집안의 문서로 여겨지는 〈李礪家記〉(권2, 기이2, 後百濟甄萱) 등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은 넓은 범위에서 고기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검토하는 《삼국유사》에서의 고기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53) 《삼국유사》 권3, 탐상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54) 《삼국유사》에서 古本の 존재에 대해서 無極의 초간본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高橋亨, 1955,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63~90쪽. 이에 대한 반론은 김상현에게 이루어졌다. 김상현, 1982,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한국사연구』 38 참조. 1512년(중종 7) 중간된 《삼국유사》 정덕본에서 後註를 하면서 그 이전의 이루어

《삼국유사》에서 고기에 대한 《삼국사기》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을 지라도 일단 그 명칭과 용례에서 훨씬 다양하다. 이들은 단일서명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국유사》 자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독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삼국유사》 찬자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사료들을 고기로 범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삼국의 각국 또는 寺中 등을 앞세운 고기들과 단순히 고기로 불린 사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삼국유사》의 고기류도 《삼국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자료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고조선〉조를 포함하여 6곳인데, 〈전후소장사리〉조에 인용된 고기는 분주 형식으로 파악될 수도 있어⁵⁵⁾ 본문에 적극 인용된 것은 5곳이다.⁵⁶⁾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의 주된 사료로 인용되면서 그 항목을 이끄는 경우와 보조 사료로 인용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기의 가장 적극적인 인용사례라고 할 것이다. 〈고조선〉조에서의 고기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나머지 4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북부여〉조는 고기의 기록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대적이다. 특히 《국사》 〈고려본기〉가 주된 자료로 이용된 〈동부여〉와 〈고구려〉조와의 연결을 해주고 있다. 고기가 아니면 〈북부여〉조를 구성할 수 없었고,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역사계승과정을 설명하는데 다른 장치가 필요했다. 〈어산불영〉조는 고기, 寶林의 설, 可函의 《관불삼매경》, 《고승전》, 法現의 《서역전》, 星函의 《서역기》를 인용해서 구성되었다. 그런데 고기는 이 항목의 제목을 〈어산불영〉이라고 붙인 주된 사료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자료들이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 〈태종춘추공〉조는 《당사》가 주된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 국내문헌으로 신라별기, 백제고기, 신라고전과 함께 고기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용되었다. 〈후백제견훤〉조는 《삼국사》본전을 주된 자료로, 견훤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비(제)가기〉, 출생에 대한 이설에 대해서는 고기가 이용되었다. 고기는 《삼국사》본전을 보조하

진 판본(古本)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강래, 2021, 위의 논문. 하지만 이강래 역시 고기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원광서학〉조에서 이용된 동경 안일호장 貞孝의 집에 있던 고본 《수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광승훈, 2011,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진단학보』 111, 45~75쪽.

55) 《삼국유사》 권3, 탐상4, 前後所藏舍利. 물론 고기의 원문은 신이사적을 실었을 것이다.

56) 반면에 분주에 인용된 고기는 본문과 다른 이설을 소개하거나(《삼국유사》 권3, 흥법3, 阿道基羅 및 法王禁殺; 탐상4, 南白月二聖努勝夫得恒恒朴朴.), 본문과 비교하여 고기의 연대관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탐상4, 南白月二聖努勝夫得恒恒朴朴 및 臺山五萬眞身).

는 위치에 있다.

〈고조선〉조를 제외하고 본문에 인용된 4가지 사례에서의 고기는 주된 자료로서 2회, 보조 자료로서 2회 인용되었다. 특히 〈후백제견훤〉조에서 고기가 백제고기와 함께 인용되고 있어 두 자료는 별개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으로 앞서 《삼국사기》에서의 ‘제고기’의 범위를 추측하는데 단서를 삼을 수 있다. ‘제고기’에서의 ‘제’는 복수의 고기를 뜻한다.

A. 왕이 죽었다. 시호를 孝昭라 하고 望德寺 동쪽에 장사지냈다.

【《唐書》에 이르기를 “長安 2년에 理洪이 죽었다”고 했고, 諸古記에 이르기를 “壬寅年 7월 27일에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通鑑》에 이르기를 “大足 3년에 죽었다”고 했으니 《통감》이 잘못된 것이다】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7월).

신라 효소왕이 사망한 시기에 대해 《당서》와 《통감》은 1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당서》의 기록을 따랐다. 그 판단의 기준은 ‘제고기’였다. 즉 제고기에는 “임인년(702) 7월 27일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고기’는 복수의 고기를 뜻한다. 즉 국내의 여러 고기에서는 그 시기가 한결같이 일치했다. 그런데 ‘제고기’가 어떤 종류의 고기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모두를 가리키는 고기류일 수 있고, 관형사를 덧붙인 ○○고기일 수도 있으며, 관형사가 덧붙지 않은 고기류를 지칭할 수도 있다. 《삼국유사》〈태종춘추공〉과 〈후백제견훤〉조의 백제고기와 고기는 ‘제고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몇몇 자료에서 고기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 대한 접근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를 통해 가능하다. 두 사서에서는 고기에 대해 공유하고 있던 흐름이 있었다. 무엇보다 고기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두 사서에서 인용된 고기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⁵⁷⁾ 고기가 중국사서와 비교하여 국내사서를 대표하는 위

57) 두 사서에서 고기를 함께 인용한 사례는 만파식적을 제외하고 《古典記》가 유일하다. 이를 인용하여 백제 온조부터 의자왕까지의 도읍 변천과 역년을 서술하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삼국유사》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追補하거나 축약하여 신고 있다. 《삼국유사》권2, 기이2, 〈南扶餘前百濟北扶餘〉 및 《삼국사기》권37, 잡지6, 지리4, 백제. 《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또 古人記錄을 전거로 고구려의 국초부터 장수왕까지의 도읍 변천과 역년을 신고 있는데, 그 전거 역시 《고전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사기》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古典記》에

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졸하다는 인종의 평과 달리 《삼국사기》 편찬에서 고기는 사료로서 적극 이용되었다. 《삼국사기》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 및 해석에 고기를 인용했다.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神異事跡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삼국사기》에서 만과식에 대한 신이를 “비록 이 설을 신지만 괴이해서 믿을 수 없다” 면서도 고기를 인용해서 서술한 것이 《삼국사기》의 고기 인용 사례에서 오히려 특별했다. 본사와 유사의 차이로 《삼국사기》에서 고기를 인용하면서 합리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한 산삭을 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했다.

고기에 실린 연대관에 대해서도 두 사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기에 실린 연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비판적이었다. 이것은 고기에 대한 《삼국유사》찬자의 신뢰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삼국유사》찬자는 고기가 전하는 역사와 불교와 관련한 신이사적에 주목했다. 그것은 괴력난신의 전설을 신이사적으로 변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⁵⁸⁾ 그런 까닭에 연대관에 대한 오류는 고기의 전체상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다른 자료로 보정되면 신이사적은 보다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서에서 인용된 고기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은 성격의 자료였을까? 특히 서명으로의 《고기》를 염두에 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 두 사서에서 고기에 대한 큰 흐름은 공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의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무졸하다는 국왕 인종의 평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두 사서의 찬술에 적극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 중 하나는 《삼국사기》에 괴력난신이 많은 고기가 어떻게 적극 인용될 수 있었는가이다. 특히 《삼국사기》 경우에는 유교적인 합리주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산삭과 변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⁵⁹⁾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삼국본사에 대응한 유사라는 측면에서, 또 종교적인 영험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찬자의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삼국사기》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대해서는 《삼국사기》 편자가 《구삼국사》와 《고기》를 이용하여 백제의 건국과 천도 기사를 정리한 《삼국사기》 초고본이란 견해도 있다.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58) 《삼국유사》 권1, 기이1, 敍曰.

59) 여기에서 토풍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단군 神異에 대한 변증과 고기

고기의 연구사는 조선후기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남구만(1629~1711)은 <동사변증>의 ‘단군’에서 삼한고기, 舊史 檀君記, 《삼국유사》를 인용하며 단군의 신이를 변증했다. 그는 먼저 구사 단군기를 인용해서 <웅제시> 유형의 전승을 전제했다. 그것은 삼한고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구사 단군기가 삼한고기는 아닐지라도 이를 인용했거나, 그 영향으로 찬술된 문헌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삼국유사》에 실린 고기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개작이 이루어졌지만 <고조선> 조 고기 수준의 단군신화를 소개했다. 그는 《삼국유사》 <고조선> 조의 고기와 삼한고기를 별개의 자료로 이해했다.

단군에 대한 변증은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온 것이 환웅인지 단군인지, 단군의 어국과 壽, 즉위년과 산신이 된 시기, 단군의 아들로 부루와 주몽의 문제 등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에 후자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거를 《필원잡기》에서 인용한 古記之說에 두고 있다.⁶⁰⁾ 《필원잡기》에서 인용한 고기는 <고조선> 조의 고기와 다른 자료이다. 단군의 향년 1048년, 단군의 부루 출생 및 부루의 도산 조희는 《삼국유사》 소재 고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단군을 변증하면서 거론한 고기는 삼한고기, <고조선> 조의 고기, 《필원잡기》를 통해 인용한 고기 등이다. 이들은 같은 성격의 고기류였지만 찬술시기를 달리하는 저술들이었거나, 《삼국유사》의 고기를 염두에 두고 (삼한)고기를 내세운 기록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태백산의 재등장이다. <웅제시> 유형을 처음 전한 권근은 물론 이후 《삼국사절요》, 《동국통감》에서는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와 나라사람들이 세워 임금이 되니 이가 단군”이라고 했다. 태백산은 환웅과 웅녀를 중심으로 하는 신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승의 합리적인 이해를 앞세웠던 고려 말 이후 조선전기까지 <웅제시> 유형에서 사라졌었다. 그런 태백산은 《동국여지승람》에서 다시 등장한다. 태백산(묘향산), 구월산, 강화, 강동현의 단군묘까지를 망라했던 《동국여지승람》에서 “신인이 태백산 단목 아래로 내려왔다”는 <웅제시> 유형의 전승은 평양의 건치 연혁에 실렸다. 평양이 고조선의 첫 번째 도읍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웅제시> 유형을 소개한 사서에서 태백산은 오운(1540~1617)의

60) 《약천집》 권29, 잡저, 동사변증, 단군 “...筆苑雜記引古記之說 云檀君與堯同日而立 至商武丁乙未入阿斯達山爲神 享年一千四十有八歲 又云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扶婁 是爲東扶餘王 至禹會諸侯於塗山 遣扶婁朝焉...”.

《동사찬요》에서 처음 확인된다.⁶¹⁾ 남구만이 지칭한 구사 단군기가 이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구사 단군기는 《동사찬요》의 〈단군조선〉 기록을 축약한 수준이다. 이로 미루어 〈동사변증〉에서의 삼한고기는 〈응제서〉 유형의 단군전승에서 태백산과 관련한 내용이 보완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⁶²⁾

그는 《삼국유사》에 실린 고기의 설을 인용한다고 밝히고 고조선 건국신화를 실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고조선〉 조의 고기를 전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⁶³⁾ 그중에 하나가 “桓因 제석”을 “桓國 제석”으로 고친 것이다.⁶⁴⁾ 환인의 성격을 가리키는 분주로서의 제석이 ‘환국의 제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고조선 이전 사회의 정치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환웅과 단군을 부자 관계가 아닌 천신 환인을 중심으로 형제 관계로 설정한 《동국여지승람》 유형과 환웅의 실체를 神市로 파악한 허목(1595~1682)에게서⁶⁵⁾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환국 제석은 이후 환국을 역사적인 실체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에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홍만중(1643~1725)도 단군을 서술하면서 《삼한고기》를 인용하였다. 그의 이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삼한고기》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남구만과 다르다. 특히 《삼한고기》를 신라 때 저작된 것으로, 혹은 안홍의 저작이라고도 한다는 설을 소개했다.⁶⁶⁾ 《삼국유사》에서 안홍의 저술로 확인되는 《동도성립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1681~1763)도 고기의 단군신화를 변증한 바 있다. 《성호사설》의

61) 《동사찬요》 권1 상, 단군조선.

62) 《연려실기술》과 《동전고》에서도 삼한고기는 확인된다. 《연려실기술》의 〈단군조선〉에서 구사 단군기와 삼한고기의 관계는 남구만의 〈동사변증〉의 그것과 같다. 《연려실기술》 별집권19, 역대전고, 단군조선; 《동전고》 권12, 역대, 단군조선. 《연려실기술》에서는 또 東國古記를 인용해서 부여국을 서술하고 있는데, 동국고기는 삼한고기와는 다른 자료이다. 《연려실기술》 별집권19, 역대전고, 濊國 “東國古記 扶餘國在玄兌北古濊國 其印文曰濊王之印 國有古城曰濊城 南閭乃扶餘君 而非在於朝鮮界內者也”.

63) 이런 경향은 비밀비재하여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다. 古記를 古紀로 개작한 사례도 확인된다. 《사가집》 권5, 序, 歷代年表序; 《금남집》 권1, 東國通鑑論, 檀君朝鮮; 《청장관전서》 권26, 〈기년아람〉 하, 檀君朝鮮; 《오주연문장전산고》, 萬物篇, 鳥獸類, 獸, 熊羆辨證說.

64) 《약천집》 권29, 잡저, 동사변증, 단군 “…而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 云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受天符印三箇 率徒三千降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6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평안도, 영변대도호부, 고적; 《기언》 권32, 외편, 東事1, 檀君世家.

66) 《해동이적》 하, 단군 “三國遺事引三韓古記云 上古九夷之初 有桓因帝釋者…三韓古記者 新羅所作 或云安弘所作”.

〈삼성사〉에서 《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되어 있는 고기의 단군신화를 인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그가 고기의 자료적인 성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東史는 김관의의 《편년(통제)》과 같은 종류로 俚俗을 뒤섞어 채집한 것이 매우 맹랑한데도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들이 취해 쓰고 있어 그 견식이 비루하다고 비판하고 있다.⁶⁷⁾ 고기는 그가 언급한 동사에 포함된다.

고기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안정복(1712~1791)이다. 그는 동방의 역사편찬은 삼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은 모두 징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군의 사적은 고기, 기자의 사적은 중국사서의 여기저기에서 취해 《동사강목》을 찬술했다고 밝혔다. 단군의 사적은 단일서목으로서의 《고기》뿐만 아니라 동방의 고기류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황탄하고 정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⁶⁸⁾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철저하게 실증적인 역사관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것은 부록에 〈고이〉와 〈괴설변증〉의 편목을 따로 두어⁶⁹⁾ 사실의 고증을 시도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지을 때에 여러 책을 참고하여 같고 다른 점을 평하고 取舍에 뜻을 두어 典實하여 법다운 것만 뽑아 〈고이〉 30권을 지은 것을 모방해서 〈동사고이〉를 지었다고 밝혔다. 그것이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으로서 절실한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⁷⁰⁾ 또 〈괴설변증〉을 특별히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들이 前代의 기록에 빠진 것을 민망하게 여겨 없던 일도 있었던 듯이 하여 상스럽고 정도에 맞지 않는 속설을 취해 正史에 편입시켜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듯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刊正”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⁷¹⁾ 그의 고기류에 대한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런 가운데 〈고조선〉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서명으로서의 《고

67) 《성호사설》 권26, 경사문, 三聖祠. 여기에서 이익이 인용하고 있는 단군신화는 《동국여지승람》 영변대도호부에 실린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영변대도호부, 고적, 태백산. 하지만 그는 이를 개작과 축약을 통해 《성호사설》에 실었다. 비판적인 검토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 고기에 관한 것은 아니다.

68) 《동사강목》 제1상, “○東方初無君長…【按 東方古記等書 此言檀君事 皆荒誕不經…】”.

69) 《동사강목》, 범례, 災祥, “一. 舊史荒怪不經之說 一切刪去 別爲辨證一篇 而有以示僞而書者 有以傳疑而書者”.

70)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71) 《동사강목》 부록 상권 중, 괴설변증. 그는 “대개 삼국의 경우는 문헌으로 밝힐 길이 없어 無知한 사람들이 지어낸 소문이니 굳이 책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은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에게서 죄”라고 단언하고 있다.

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 증거로 “당요 50년 경인년에 단군이 즉위했다는 《고기》의 기록에 대해 요임금 원년은 무진년으로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라는 일연의 自註를 들었다. 당요 50년 경인년은 《황극경세서》와 다르기 때문에 《고기》는 이와 다른 별개의 책이 틀림없다는 것이다.⁷²⁾ 그렇지만 단군의 신이는 탄망해서 변증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⁷³⁾ 그는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전승을 소개하면서도 檀君을 檀君으로 개작하고 《동국통감》에서 〈응제시〉 유형의 전승을 싣고 《고기》를 생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물론 그도 단군이 동국의 首出之君으로 신성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되었을 것이고, 신성한 탄생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기》의 단군 신이는 너무 무리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안정복은 《고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라의 이속들을 모아 고려에서 편찬한 것으로 작자는 승려일 것이라고 했다. 그 증거로 환인 제석이 《법화경》에서 나왔듯이 많은 인명과 지명이 불경에서 나왔고, 승려가 지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실을 들었다.⁷⁴⁾

안정복은 또 동국고기를 언급했다. “북부여가 단군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동국고기에 있다는 것이다.⁷⁵⁾ 여기서 동국고기가 단일서목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사실 《삼국유사》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북부여〉조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가 아들 부루를 낳았다는 기록을 싣고 있고, 〈고구려〉조에서는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부루를 낳았다”는 전승을 《단군기》를 인용해서 분주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는 부루를 중심으로 해모수와 단군을 같은 존재로 파악한 것인데, 여기서 그가 그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동국고기는 다름 아닌 《단군기》로 파악된다. 즉 동국고기는 앞서 언급한 동방고기와 같은 고기의 범칭으로 보이며, 이 항목에서의 동국고기는 《단군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72)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檀君元年戊辰 當唐堯二十五年. 안정복은 《삼국유사》가 一然의 독립 찬술이 아니라 無極 등과 공동 저작한 것이었고, 단군 즉위년에 대한 分註도 《고기》의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 찬자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73) 이런 안정복의 비판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에게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로 역이용되었다. 白鳥庫吉, 위의 논문(b) 및 小田省吾, 위의 논문; 今西龍, 1929, 위의 논문 참조.

74) 《동사강목》 부록 상권 중, 괴설변증, 古記云 昔有桓因帝釋庶子桓雄. 단군의 신이를 수록한 《고기》에 대한 안정복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 되고 있다. “...羅麗之代 尊崇釋教 故其弊至此 作史者閱其無事可記 至或編於正史 使一區仁賢之方 舉歸於語怪之科 可勝惜哉”. 成海應(1760~1839)도 《고기》가 승려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했다.

75)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後漢書夫餘之誤.

안정복에게서 고기는 단일서목이기도 했지만, 동국(동방)의 옛 기록을 범칭하는 것이기도 했다.⁷⁶⁾

그가 《단군기》를 지칭했던 동국고기는 <괴설변증>에서는 고기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기의 범위가 단군의 부루 출생에 한정된 《단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금와와 대소로의 계승과 고구려 대무신왕에게 멸망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삼국유사》 <북부여> 와 <동부여> 조에 인용된 고기와 《국사》 <고려본기> 까지를 포함한 것이다.⁷⁷⁾ 최소한 이곳에서만큼은 《단군기》와 고기를 동일시한 것인데, 그의 이런 관점은 고이편의 <夫妻當有二人>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B. 《삼국유사》에서는 《檀君記》를 인용해서 이르기를 “西河 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夫妻를 낳았다”고 하였다. 또 北扶餘篇에 이르기를 “해모수가 북부여에 나라를 세우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고 했으니, 이때는 한 선제 神爵 3년에 해당된다. 또 <高句麗記>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해모수가 하백의 딸을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했으니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라고 하였다. 또 王曆篇에 이르기를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했다(《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夫妻當有二人>).

이에 따르면, 단군의 부루와 주몽 출생, 해모수의 부루와 주몽 출생이라는 네 가지 에피소드는 編과 記를 달리하지만, 마치 《단군기》와 <고구려기>를 인용해서 정리한 것인 듯 보인다. <고구려기>는 《삼국유사》에서의 《국사》 <고려본기>를 가리킨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북부여편에서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는 기록의 전거가 《단군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기라는 사실이다. 즉 안정복은 《단군기》와 고기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했다.⁷⁸⁾ 이럴 경우 고기는 앞서 <고조선> 조의 《고기》

76) 《동사강목》에서는 <泉蓋蘇文>에서 高麗古記를, <甄萱別傳>에서 고기를 인용하여 羊膍과 견훤의 출생에 대해서도 신고 있다. 그 내용은 《삼국유사》의 고려고기와 고기의 것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정복은 “一說로 갖추어 두나 소위 羊膍의 설은 너무 허황해서 믿을 수 없다”거나, “本史인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異聞으로 기록해서 남긴다”고 하여 고기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泉蓋蘇文 및 甄萱別傳.

77) 단군의 하백 딸과 혼인, 부루 출생과 북부여왕이 되었다는 고기의 기록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단군 역년 천여년을 제시한 권근의 견해를 빌려서 비판되고 있다. 《동사강목》 부록 상권 중, 괴설변증, 古記云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78) 그는 또 “북부여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고기》의 기록을 인용해서 고조선의 강역을 遼地로 파악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고기의 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와 같이 단일서명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⁷⁹⁾ 그러나 이 둘을 같은 문헌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단군기〉가 《고기》라는 책의 편목일 수 있고, 고기류에 《단군기》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⁸⁰⁾

이 같은 고기류의 동국문헌은 안정복에게 해동고기, 동국고기로 통칭되었다. 그는 〈三韓後說〉과 〈三國始起〉에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상고할만한 文籍이 전해지지 않아 중국사에서 우리나라 일이 언급된 것과 신라의 遺籍, 해동고기의 類編, 동국고기의 단편적인 것들을 뽑아 썼다고 했다. 신라의 거칠부, 고구려의 이문진, 백제의 고흥이 기록한 국사는 듣지도 못했다고 하였다.⁸¹⁾ 여기서 동국고기는 앞서 〈고이〉에서 언급된 그것과 같이 동국에서 전해오는 고기의 범칭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동고기도 단일서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또한 해동은 고기 앞에 덧붙여져 시간과 지역적인 범위를 지시하는 역할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해동고기와 동국고기는 해동(동국)에서 전해오던 고기류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고이〉, 〈괴설변증〉, 〈잡설〉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여러 고기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했다. 그가 이해하고 있던 고기는 해동(동국)을 시간과 지역적인 범위를 하는 옛 기록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언급한 고기는 고기류라고 해야 정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삼국유사》 〈고구려〉 조에서 인용된 《단군기》 또한 고기류에 속했다. 그렇지만 그는 고기류에서도 서명으로서 《고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인 〈고조선〉 조의 《고기》와 〈북부여〉 조의 《고기》였다. 이 두 사서는 같은 문헌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책이었다. 특히 그는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해 신라의 이속들을 모아 고려시대에 승려가 편찬한 사서로 추정했다.

않는다. 《삼국유사》에서의 〈북부여〉와 〈고구려〉 조에 인용된 단군과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는 《단군기》와 고기의 기록을 통한 변증의 결과이다. 《동사강목》에서 사료를 통한 철저한 고증과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사강목》 부록 하권, 檀君疆域考.

79) 그런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여기서도 또 다른 두 가지 가능성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하나는 〈고조선〉 조의 《고기》와 〈북부여〉 조의 《고기》가 같은 책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두 문헌이 모두 《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별개의 책일 가능성이다.

80) 안정복은 단군=해모수가 아니라 해모수를 단군의 후예로 파악하여 부루 역시 단군의 아들인 부루와 해모수의 아들인 부루, 2명으로 파악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夫妻當有二人 “…古來傳說荒誕 終無可信之文 今只從其近似者 夫妻則分爲二人而錄之”.

81) 《동사강목》 부록 상권 하, 잡설, 三韓後說 및 三國始起.

C. 구해 본 《고기》 1책은 바로 신라의 俚俗을 전한 것으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고 僧家の 언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순암집》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 [丙子]〉).

사실 그는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고기》를 직접 참고했다. 그가 구해본 《고기》는 1책으로 고려시대에 찬술된 것이지만 내용은 신라의 이속을 담고 있어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 많고, 반 정도가 불교의 언어로 된 것이었다. 자료 C를 유의할 때,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단군과 관련한 기록의 전거를 삼고 있던 것은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고기》가 아니라 그가 직접 얻어서 본 《고기》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연이 〈고조선〉 조에서 이용한 《고기》와 그가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단군 관련 기록에서 이용한 《고기》가 같은 성격의 문헌이었다고 할 것이다.⁸²⁾ 그렇지만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가 단일서목이 아닌 복수의 고기류였듯이 《동사강목》에서의 고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류와 자신이 구한 《고기》를 함께 이용하며 고기의 기록에 대한 변증을 시도했다.

강재항(1689~1756)은 “조선은 옛 숙신의 땅이었다”는 고기의 기록을 전제로 고조선과 숙신의 관계를 논평했다.⁸³⁾ 이를 실은 고기 역시 처음이다. 이규경(1788~?)은 삼한의 시초를 전하는 《고기》를 작자를 알 수 없는 동국의 사서 중에 하나로 파악했다. 하지만 조작된 내용으로 믿을만한 것이 없어 단편적인 기록만 전하는 중국 역대의 사서로 고증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⁸⁴⁾ 류득공(1748~1807)은 “대체로 승려가 찬술했기 때문에 허황되고 황당해서 사대부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⁸⁵⁾ 윤행임(1762~1801)은 《고기》를 고구려의 《留記》에 대비되는 신라의 史體라고

82) 순암이 보았다는 《고기》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응제시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동일한 것이었고, 그것은 《해동고기》를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상현, 2014, 위의 논문. 그렇지만 신라 때 찬술된 《신라수이전》 또는 《고본수이전》이 고려 전기에 증보된 것처럼 고기 역시 삼국 이후 고려 또는 조선시대로 전해져오면서 증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광연, 2018,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古記』 연구의 흐름」 『진단학보』 130, 38~41쪽. 안정복이 보았을 《고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83) 《입재집》 권9, 잡저, 東史評証, 肅愼三朝鮮高句麗三韓.

84)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4, 사적류1, 史籍總說, 東國諸家史類; 경사편5, 논사류1, 論史, 三國立國辨證說.

85) 《해동역사》, 序文(柳得恭).

했고, 정원용(1783~1873)은 《해동고기》를 삼국 역사를 대상으로 한 작자 미상의 고려시대 사서로 이해했다.

17~18세기 연구자들이 단군의 신이를 변증하면서 이용한 고기에는 범칭의 고기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 《고기》도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이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고려시대부터 유전되던 《고기》를 직접 참고하기도 했다. 그들은 삼한고기, 해동고기와 동국고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안정복에게서 확인되는 해동고기와 동국고기는 특정서목으로 파악되지 않고 해동 또는 동국이라는 시간과 지역을 범위로 하는 고기의 범칭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홍만종에게서 확인되는 《삼한고기》는 특정서목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가 이해한 《삼한고기》는 남구만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 남구만에게서 삼한고기는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에서 태백산이 보완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해되었다. 반면 홍만종에게서 《삼한고기》는 〈고조선〉조의 《고기》로 특정되었고, 그 찬술 시기는 신라로 검토되었다.

그들이 신이로 가득 찬 고대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중에서도 단군의 신이는 으뜸이었다. 이를 전하는 고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신이를 산삭할 수 없었던 것은 고려 이전의 역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국통감》에서 단군조선을 〈외기〉로 다룬 예와 같다. 안정복이 고기류에 전해지던 단군과 관련한 신이를 시종일관 황탄한 것으로 비판하면서도 이를 〈고이〉, 〈괴설변증〉, 〈잡설〉에서나마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시경》의 〈生民詩〉와 후세의 상서로운 일에는 僞妄한 것이 많다는 주자의 말을 참작한 결과였다.⁸⁶⁾ 변증은 비판적이지만 새롭게 이해하려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이를 전하는 고기도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다.

4. 단군 古記類와 <고조선>조의 고기

《삼국사기》에서 고기에 대한 긍정론은 《삼국유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지되고 있지만, 연대관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굳이 “幻과 鬼가 聖과 神으로 바뀌었다”는 이규보의 언급을 들지 않더라도 기이편에서의 고기들은 괴력난신의 일에 불과한 전설을 신이로 가득 찬 역사적 사실로 전환

86) 《순암집》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丙子].

시켰다. 특히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고기의 기록은 절대적이다. 이 점에서는 《삼국사기》에서의 고기와 비교해서 그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문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명칭인 “고기를 왜 전거로 채택했을까?” 이다.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국내문헌은 다양하다.⁸⁷⁾ 그중에는 《단군기》·《가락국기》·《본조사략》·⁸⁸⁾《삼한토론집》·《三寶感通錄載》·《안국병법》 등 《삼국유사》에서만 확인되는 것도 상당하다. 반면에 한 종류의 전거가 여러 이름으로 실려 있어 독자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혼선은 고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하다.

기이편에서 고기는 신이사적을 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중국 또는 국내 사서와 고기에 있었다. <고조선> 조의 《위서》와 고기, <북부여> 와 <고구려> 조에서의 《국사》<고려본기> 와 고기, <태종춘추공> 조의 《당사》와 고기류, <후백제전환> 조의 《삼국사》 본전과 고기 등의 관계이다. 고기는 전제의 사실을 신이사적을 통해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 <태종춘추공> 조는 《당사》를 주된 사료로 하고, 본문에서 신라별기, 백제 고기, 신라고전과 함께 고기를 인용했다. 분주에서는 鄉記를 인용했다. 고기에서는 신라에서 당에 도움을 요청한 군사들이 평양에 도착한 때를 총장 원년 무진년(668)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는 “만약 총장 무진년이라면 李勳의 일인데 아래 글에 보이는 소정방은 오류다. 만약 (소)정방이라면 연호가 마땅히 용삭 2년 임술년(662)에 해당하니 고구려에 와서 평양을 포위한 때다” 라고 분주했다.⁸⁹⁾ 고기의 연대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 찬자는 《당사》 및 제고기와 함께 고기의 기록을 신뢰하였다.

이 구조는 <고조선> 조의 사료 인용방법과 비교된다. <태종춘추공> 조의 《당사》는 <고조선> 조의 《위서》와 <태종춘추공> 조의 고기를 비롯한 여러 고기류는 <고조선> 조의 고기와 비교할 수 있다. 단군왕검이 당요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했다는 고기의 기록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는 “당요 즉위 원년은 무진으로 50년은 정사이고 경인이 아니” 라고 연대관을 비판한 것도 같다. 《삼국유사》 찬자의 고기에 대한 비판은 기록 전체를 대

87)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헌은 중국 및 일본 서적 43종을 포함해서 185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범교,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88) 《본조사략》을 李齊賢의 《史略》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다. 남동신, 2019,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 230~234쪽.

89)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군 즉위년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두 항목에서 《삼국유사》 찬자가 보여준 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연대관 비판은 같은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조에 인용된 고기는 어떤 성격의 자료였을까?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류에는 ○○고기와 같은 고기류와 그렇지 않은 고기류가 있었다. 이들은 《삼국사기》에서 지칭하는 ‘제고기’의 범위에 있다. 〈태종춘추공〉과 〈후백제전환〉조에서는 백제고기와 고기가 본문에서 함께 인용되었다. 고기를 ○○고기와 달리 검토해야 할 이유이다. 〈고조선〉조의 고기도 관칭이 덧붙지 않은 고기였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검토 범위는 후자로 국한할 수 있다.

고려시대 단군과 관련한 사적을 전하는 전기에는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단군기》, 《제왕운기》에서의 본기와 《단군본기》가 확인된다. 《삼국유사》 〈왕력〉에서 고구려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 미지의 자료, 《삼국사기》에서 평양이 선인왕검의 땅[宅]이라고 한 미지의 자료⁹⁰⁾ 또한 고기류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은 큰 범주에서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다.⁹¹⁾ 특히 《제왕운기》에서 《(단군)본기》의 위치가 《수이전》과 함께 《국사》를 보완하는 전기류에 있음은⁹²⁾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비교된다. 단군 고기류에 대한 성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지만, 자료적인 한계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고기가 가지는 위상은 단연 뛰어나다.

〈고조선〉조는 본문에서 《위서》, 고기, 《당배구전》, 《통전》을 인용하며 구성되어 있고, 분주에서는 어떤 성격인지 특정할 수 없는 《經》과 《한서》가 인용되어 있다. 《위서》는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고기는 이에 대한 내용을 신이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고기는 《위서》에 補습의 관계에 있다. 《당배구전》과 《통전》을 인용해서는 고조선 이후의 계승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또 《단군기》는

90) 그 내용은 대략 “평양의 선조는 삼한 이전의 仙人王儉으로 平壤神(西京神)으로도 불렸고, 그 壽는 1천년을 넘어 신선이 되었다”는 정도였다고 추측된다. 〈趙延壽墓誌銘〉(<http://db.history.go.kr/>); 김성환, 1998,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23-142쪽.

91)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檀君古記》가 인용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서의 자료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靈異.

92) 《제왕운기》 권하, 東國君王開國年代, “謹據國史 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 參諸堯舜已來經傳子史 去浮辭 取正理 張其事而詠 以明興亡年代 凡一千四百六十言”.

〈고구려〉 조에서 분주로 인용되면서 하백녀를 중심으로 단군과 부루,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고조선→북부여→고구려로의 역사계승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왕력〉의 출처가 되는 미지의 고기도 마찬가지이다.⁹³⁾

〈고조선〉 조 고기의 성립연대에 대해서는 〈북부여〉 조 고기에 등장하는 흘승골성에 대한 분주인 “大遼 醫州界”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두 항목의 고기를 같은 자료로 파악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그 시기를 고려와 요나라의 관계에 주목하여 11세기 후반 또는 1019년부터 1125년 사이로⁹⁴⁾ 설정했다. 그런데 〈북부여〉 조에서의 고기는 북부여의 구성을 오로지 담당했다. 해모수가 흘승골성에 내려와 도움을 정해 북부여라고 했고, 후에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졸본주에 도읍하여 졸본부여라 하고 고구려 시조가 되었다고 했다. 《삼국사기》에서는 《통전》을 인용해서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동남쪽으로 나아가 보슬수를 건너 흘승골성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국호를 구려라고 했다고 전제했다.⁹⁵⁾ 또 바로 고기를 인용하여 주몽이 부여에서 난을 피해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렀다고 했다.⁹⁶⁾ 두 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같은 자료 또는 같은 성격의 자료일까? 같은 자료라면 〈북부여〉 조에 인용된 고기의 기록을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에서 대폭 축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사서에서의 만파식적에 대한 서술의 예와 같다.

흘승골성에 대한 비정에서 《삼국사기》 찬자는 흘승골성과 졸본을 같은 곳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한서지》와 《주례》의 無慮와 북진 의무려산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국사》 〈고려본기〉를 인용해서 서술한 〈고구려〉 조에서 졸본주는 《삼국유사》 찬자에 의해 “현토군 지역”이라는 분주가 이루어졌다.⁹⁷⁾ 큰 범위에서 현토군 지역에 흘승골성과 졸본주가 위치했지만, 두 곳은 다른 장소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다르다. 흘승골성과 졸본주와 관련해서 두 사서에서 인용한 고기는 최소한 같은 성격의 자료로 보이지만, 그 비정에서 《삼국유사》는

93)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왕력의 기록 출처가 《단군기》라는 견해도 있다. 박대제, 2015, 위의 논문, 15~16쪽.

94)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上, 375쪽; 서영대, 1997, 「高句麗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만경이충희선생화갑기념 동서문화논총』Ⅱ, 68~69쪽.

95) 〈고구려본기〉에서도 주몽이 졸본천에 이르렀다는 기록에 “魏書云 至紇升骨城”이라고 분주되었다. 《삼국사기》 권31,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통전》, 《위서》 등 중국사서에서는 주몽의 첫 도읍을 흘승골성으로, 고기 등의 국내자료에서는 졸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96)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97)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

《삼국사기》를 따르지 않고 재해석을 하였다. 즉 두 사서에서의 고기가 같은 성격의 것일지라도 흘승골성에 대한 분주가 고기의 原註가 아니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을 참고한 《삼국유사》 찬자의 것이라고 한다면,⁹⁸⁾ 이를 근거로 고기의 성립연대에 접근하려는 추론은 접어야 한다.

단군의 후계와 관련된 전거들의 관계에서 〈고조선〉과 〈북부여〉조의 고기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주몽을 중심으로 그 부계로서 단군과 해모수, 부루를 중심으로 그 부계로서 단군과 해모수와 관련된 전승이 있다. 단군-주몽은 왕력에서, 해모수-주몽은 《국사》〈고려본기〉, 해모수-부루는 〈북부여〉조 고기, 단군-부루는 《단군기》로 그 전거가 확보된다.⁹⁹⁾ 하지만 정작 《삼국유사》 찬자가 이야기하고자하는 단군-주몽은 전거가 밝혀지지 못한 미지의 고기를 전거로 한다. 때문에 〈고구려〉조에서 다소 무리한 변증을 통해 부루와 주몽을 이모형제로 하는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인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각 전승의 시계열적인 이해에서 동부여의 부루와 고구려의 주몽이 한 세대 정도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제까지는 단군-부루 전승이 단군-주몽 전승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이 전승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단군-주몽의 역사계승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자보다 후자가 먼저 만들어졌을 수 있다. 즉 ① 〈고조선〉 고기 → ② 〈북부여〉조 고기 → ③ 왕력의 단군-주몽 → ④ 《국사》〈고려본기〉 → ⑤ 《단군기》의 순으로 전승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단군-주몽의 부자관계는 《삼국유사》 찬자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지의 고기 찬자들 역시 하고자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군기》와 왕력에서 단군-주몽의 전거는 같을 수 없다. 이것은 고조선-고구려로 이어지는 4가지 종류의 전거가 모두 각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단군 고기류에서 《단군기》와 왕력에서 미지의 고기는¹⁰⁰⁾ 〈고조선〉조의 고기와 비교하여 불완전하지만 후계를 중심으로 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부여〉조에서는 흘승골성에 도읍한 북부여의 천제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고, 해부루는 동부여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북부여를 이은 동명제가 졸본부여를 세웠다고 했다. 해모수의 아들로 부루가 있을 뿐 동명은 해모수와

98)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이강래, 『三國史記 典據論』, 187쪽.

99) 〈고조선〉조에는 단군의 후계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단군이 후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당대에 끊어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100) 今西龍은 왕력의 주몽에 대한 ‘壇君之子’와 《단군기》를 인용한 기록에 대해 일연 이후 後人에 의한 보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今西龍, 1929, 앞의 논문.

혈연관계로의 연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해모수와 주몽의 부자 관계는 《국사》 〈고려본기〉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주몽이 출생했다고 했다. 《삼국유사》 찬자는 여기에서 문제가 꼬였다는 것을 알았다. 고기에서는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고 했는데, 〈고려본기〉에서는 또 해모수와 하백의 딸 사이에 주몽을 낳았다고 했으니 해모수는 부루와 주몽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화였지만, 부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삼국유사》 찬자가 의도한 것은 고조선에서 북부여, 동부여를 거쳐 고구려에 이르는 역사계승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려면 고조선과 북부여를 잇는 고리와 북부여와 고구려를 잇는 고리가 필요했다. 후자는 《국사》 〈고려본기〉로 해소될 수 있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답이 없어 보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했다”는 《단군기》의 기록이다. 하백의 딸을 중심으로 단군이 낳은 아들 부루는 동부여를 세우고, 해모수가 낳은 아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만으로는 부루와 주몽은 하백녀를 중심으로 異父兄弟로 파악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찬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왕력에서처럼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해야 했다. 고기에서는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단군기》의 단군과 고기의 해모수는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겨 단군(해모수)은 부루와 주몽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삼국유사》 찬자는 부루와 주몽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단군기》의 서하 하백의 딸과 《국사》 〈고려본기〉의 하백녀 유화를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 즉 부루와 주몽을 어머니가 다른 형제 異母兄弟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을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데서 오는 세대 간의 중첩 등에 있었을 것이다. 다소 무리한 변증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이로써 단군(해모수)→부루·주몽으로 이어지는 고조선→북부여→동부여·고구려의 역사계승관계가 성립되었다. 《삼국유사》 찬자가 기이편의 모두에서 〈고조선〉·〈북부여〉조를 설정하여 각각의 고기를 통해 이를 서술하고 〈동부여〉·〈고구려〉조에서 《국사》 〈고려본기〉에 그 위치를 넘긴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주로 해동고기, 삼한고기 등 고기의 명칭으로 구체성을 띠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고기가 ‘옛 기록’이라 하여 시대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보통명사의 성격을 가져 사서의 고유명칭으로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삼국 각국

의 이름이 덧붙여진 고기,의 명칭은 그 이전의 역사를 염두에 둘 때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서로서의 명칭이 필요했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해동고기와 삼한고기, 그리고 이와 함께 아방의 지칭으로 사용된 동국을 덧붙인 동국고기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서명이었다. 남구만과 홍만종 등에게 삼한고기 또는 신라 안흥의 《삼한고기》가, 안정복에게 해동고기가 검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동고기와¹⁰¹⁾ 삼한고기에¹⁰²⁾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고기론으로 확대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적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명으로 파악한 쪽에서는 한 자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견해부터¹⁰³⁾ 해동고기와 본국고기를 일치시키고 광개토왕 때 편찬되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주된 사료로 이용되었다는 견해,¹⁰⁴⁾ 《구삼국사》로 파악한 견해¹⁰⁵⁾ 등이 있다. ‘옛 기록’의 범칭이라는 쪽에서는 ‘아방’과 관련해서 검토했다. 14세기 전반에 김태현(1261~1330)이 동인의 시문을 모아 찬술한 《동국문감》이 《해동문감》으로도 불렀다는 점에 서¹⁰⁶⁾ 해동, 삼한, 동국은 상호 교섭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이 서명이든 그렇지 않든 해동고기와 삼한고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삼국유사》 찬술에 《삼국사기》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일연 또한 《삼국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해동고기와 삼한고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가 이들을 서명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¹⁰⁷⁾ 《삼국사기》에서 해동고기는 고구려 태조

101) 김영경, 1984,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4-4. 그는 《삼국사기》에서의 고기를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다른 기전체 사서로 파악했다.

102)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103) 《증보문헌비고》 권244, 예문고3 “三韓古記 撰人姓名未考 三國史亦多引用 疑與海東古記同爲一書”. 이로 미루어 《증보문헌비고》 찬자는 《삼국사기》에 인용된 古記를 三韓古記 또는 海東古記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04) 신동하, 199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해동고기와 본국고기를 고구려의 《신집》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高寬敏, 위의 책.

105) 임기환, 2006,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106)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 및 〈김태현묘지명〉(1330); 〈김광재묘지명〉(1363)(<http://db.history.go.kr/>).

107) 成海應과 李裕元(1814~1888)은 고기를 인용해서 五國城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연경대전집》외집 권49, 지리류, 西北邊界考; 《임하필기》 권11, 문헌지장편, 五國城. 그런데 丁若鏞(1762~1836)은 이를 해동고기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여유당전서》 권6, 지리집 권5, 대동수경1, 滌水2. 정약용에게서 고기와 해동고기는 하나의 자료를 두고 불

대왕의 양위와 죽음에 대해 《후한서》와 비교되는 위치에서 인용되었고 줄여서 고기라고도 칭해졌다. 또 삼한고기는 《책부원구》에 전하는 백제왕 모도에 대한 기록을 부정하는 위치에 있다.¹⁰⁸⁾ 그 인용사례들은 중국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국내문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었다. 이들이 서명이었던더라도 《삼국유사》에서 전거로서 고기의 인용사례를 볼 때, 일연은 “해동(삼한)의 고기류”라는 범칭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라고기, 백제고기, 고려고기 등을 직접 전거로 제시했다. 해동고기, 삼한고기와는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렇다고 이들도 서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중고기’의 사례와 같이 신라고기의 경우에 “신라와 관련된 옛 기록”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고기로 불린 자료군들은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각국을 칭한 고기들이 그와 관련된 고기 정도의 범칭이라면 〈고조선〉과 〈북부여〉조에 인용된 고기는 고조선고기 또는 단군고기, 혹은 (북)부여고기로 불려도 괜찮았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백제고기와 고기가 함께 인용된 항목이 《삼국유사》에서 확인되고 있음에서 고기는 이들과 분명 구분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조선〉조의 고기를 《단군고기》로 파악한 견해가 확인된다.¹⁰⁹⁾ 여기에서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고려 문종 말에서 예종 무렵까지 40~50년(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고조선〉조의 고기를 인용부터 고종 무렵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때가 왕검선인에 단군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때라고 했다.¹¹⁰⁾ 〈고조선〉조의 《고기》를 제1의 《단군고기》,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것을 제2의 《단군고기》로 구분했다. 또 《단군기》는 제1의 《단군고기》와 완전히 다른 전설을 싣고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일 수 없고, 오히려 제2의 《단군고기》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책으로 검토했다. 제1의 《단군고기》에 실린 단군전설이 《단군기》에 비해 원시적인 면이 다분하고 지나치게 꾸민 것이 적다고 했다. 제2의 《단군고기》는 조선 태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

린 명칭이다. 해동과 고기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108)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5, 태조대왕 94년 12월; 권33, 잡지1, 제사;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 11월. 《삼국사기》에서 해동고기가 고구려, 삼한고기가 백제와 관련해서 서술되었음에 착안해서 해동고기는 고구려본기의 원전이 된 것으로 이해된 《신집》, 삼한고기는 백제본기의 원전이 된 것으로 이해된 《구삼국사》로 검토되기도 했다. 高寬敏, 앞의 책.

109) 今西龍, 1929, 앞의 논문.

110) 이것은 《위서》와 함께 고기의 실재를 의심하여 단군신화 자체를 일연의 창작으로 단정했던 초기의 연구와 다르다. 今西龍, 1910, 「檀君の說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

는 금서들과 같은 도참 관련 서적으로 파악했다.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류에 대한 《고기》로의 접근은 안정복이 보았다는 《고기》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고조선〉조의 고기를 제1의 《단군고기》로 파악한 것은 《삼국유사》에서 고려고기 등 각국 고기의 존재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의 《단군고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고조선〉조의 고기는 기이편 다른 항목의 고기와 비교하여 “단군전승을 전하고 있는 옛 기록”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¹¹¹⁾ 그런 점에서 《단군고기》의 설정은 일견 주목되지만, 그것은 구분을 위한 분류였다. 더욱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의 《단군고기》를 당시 금서목록에 오른 도참 관련서적으로 파악한 것은 동의되지 않는다. 태종과 세조 때 금서목록에서 확인되는 《神秘集》, 《고조선비사》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들은 《신지비사》에 대한 이칭이었다.¹¹²⁾ 《단군고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시라도리 쿠라키치와 이마니시 류에게서 확인되듯이 그들은 《필원잡기》와 《연려실기술》에서 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전거로 실은 단군전승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판단했다. 《고기》 유형보다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을 古型으로 파악했다. 단군전승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응제시〉의 전승이 역사적 사실에 근사하다는 판단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조선〉조 고기의 기록은 佛說에 근거해서 승려가 허구로 지어낸 가공의 仙譚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¹¹³⁾

하지만 단군즉위년에 대한 일연의 비판적인 自註는 〈고조선〉조 고기의 기록이 《삼국유사》 찬자의 창작일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¹¹⁴⁾ 그런 점에서도 고기 기록의 성립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단군신화의 형성시기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신화의 채록시기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를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구삼국사》의 편찬시기가 그때가 될 것이고, 서명으로서 해동고기와 관련해서 검토할 때는 그만큼 더 소급될 수 있다. 하지만 〈고조선〉조의

111) 김성환, 1999, 「단군전승의 유형(I)」 『중앙사론』 12, 1-34쪽(김성환, 2002, 위의 책 재수록)

112) 김성환, 2022,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수록 예정).

113) 白鳥庫吉(a), 위의 논문; 今西龍, 1929, 앞의 논문.

114) 今西龍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단군고기》에서 그 시기를 “與唐堯同日而立”으로 기록한 것은 .단군즉위시기가 요임금 즉위 50년 경인년이라고 한 〈고조선〉조의 고기 기록을 《단군고기》 찬자가 달갑게 얹게 여겨 《위서》에서의 “與高同時”를 끌어들이어 왜곡시킨 결과라고 했다. 今西龍, 1929, 앞의 논문.

고기가 “단군전승을 전하고 있는 옛 기록” 정도로 검토된다면, 그 시기를 추측할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북부여〉 조 고기와 관련된 성 속에서 고려전기로 검토하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한 추론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건국 이전 그 지향에서 숙신·변한과 함께 조선이 거론되고 있음에서 이미 일통삼한을 넘어 고조선에서 비롯하는 역사 계승의식의 존재를 염두에 둘 수 있다.¹¹⁵⁾ 다만 그것이 고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이다.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많은 고기류의 자료에서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는 5~6종의 자료군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고조선〉 조의 고기는 단군 고기류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것은 고려 전기 왕실의 延基業과 관련한 도참의 영향을 받은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¹¹⁶⁾ 조선후기 이후 그 성격을 해동고기, 삼한고기 등과 관련지어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자료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다. 〈고조선〉 조의 고기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추론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5. 맺음말

〈고조선〉 조의 고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4백년 이상의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다. 그간에 여러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성격부터 성립시기에 이르기까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류가 상호 정보가 공유되었는지의 이해관계가 검토되어야 하고, 《삼국사기》에서 고기가 가지는 정보와 흐름이 《삼국유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곳곳에

115) 이런 측면에서 고기에서 추출된 단군역년 3408년은 고려가 건국된 918년이어서 고기의 성립연대가 고려 건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박대재, 2015, 앞의 논문; 2022, 위의 논문. 여기에서는 또 《제왕운기》에서의 단군역년 3288년(3268년으로 보정)도 고려가 신라의 정통성을 이은 935년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두 자료에서의 역년이 모두 고려의 건국 및 일통삼한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6)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11~56쪽.

전거로 등장하는 고기의 대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기이편에서 인용된 고기류, 그리고 그 내용을 〈고조선〉조의 고기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거시적인 틀에서의 접근이라면, 미시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기가 서명인지의 여부, 그렇지 않다면 불완전한 사서를 전거로 인용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고려 상고사의 첫머리에 등장시킨 이유, 고기의 성립시기와 배경, 고기에서 담고 있는 고조선에 대한 담론, 단군신화에 대한 세세한 분석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조의 고기가 담고 있는 단군신화는 단군의 어국과 향국을 역년으로 접근한 권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변증을 통해 해석되어왔다. 17~18세기에는 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성리학의 눈을 통해 들여다 본 그 신화는 황탄하고 佛說에 둘러싸인 것으로 비판되었다. 괴력난신이 일연을 통해 神異로 전환된 앞 시대의 시선과는 전혀 달랐다. 남구만, 홍만중, 안정복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연구자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단군신화를 조선 상고사의 서두에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조선〉조의 고기는 삼한고기, 해동고기, 동국고기와 관련해서 검토되었고, 홍만중은 신라 안흥의 《삼한고기》로 특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안정복은 〈고조선〉조의 고기가 〈북부여〉조의 고기와도 준별되는 자료로 파악했다. 실제로 그는 〈고조선〉조의 고기의 내용이 실린 《고기》 1책을 구해 《동사강목》의 찬술에 이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어용학자들은 17~18세기 고기의 연구성과를 고조선 부정론에 역이용했다. 그들이 대중교 동향을 유의하고 있었듯이 그 관심은 당시 대중교운동으로 고조된 단군에 대한 열기를 꺾고 내선일체, 일선동화를 위해 일본건국신화 안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를 재편하거나, 佛說에 근거해서 승려가 허구로 지어낸 가공의 仙譚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데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필원잡기》와 《연려실기술》에서 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전거로 실은 단군전승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것은 17~18세기 연구자들에게서 〈고조선〉조 고기의 실체로 검토된 삼한고기, 해동고기, 동국고기를 대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고조선〉조 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근래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여전히 그 실체를 삼한고기 또는 해동고기로 검토하는 시각도 있고, 단일서명으로서의 《고기》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다. ‘옛 기록’이라는 자의를 존중하는 견해도 있다. 그 성립시기에 대해서도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검토되기도 하고, 〈북부여〉조 고기에서 분주된 “大遼 醫州界”와 관련하여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고려의 건국과 관련해서 검토된 견해도 있다.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류의 자료에는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는 5~6종의 자료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고조선〉 조의 고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조선〉 조에서 고기는 《위서》와 보합의 관계에 있다. 《위서》가 고조선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고기는 이를 신이사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기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무어라 규정지을 수 없을 듯하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추론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자료

《사기》, 《魯齋遺書》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사찬요》,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사강목》, 《증보문헌비고》
《동국이상국전집》, 《해동고승전》, 《보한집》, 《동문선》, 《양촌집》,
《사가집》, 《금남집》, 《약천집》, 《성호사설》, 《해동이적》, 《순암집》,
《임재집》, 《청장관전서》, 《연려실기술》,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경재전집》,
《임하필기》, 《여유당전서》

저서

강경구, 1997, 『삼국사기 원전 연구』, 학연문화사
김성환, 2002,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이강래, 1997,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이강래,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이강래, 2021, 『한국 고대의 시선과 시각』, 주류성
이범교,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민족사.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전덕재, 2021, 『삼국사기 잡지 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 上, 堉書房
高寬敏, 1996, 『「三國史記」의 原典의 研究』, 雄山閣

논문

곽승훈, 2011,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김갑동, 2019, 「고려의 7대사적과 태조실록」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김상현, 1982,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김상현, 2014,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한국고대사학회
김성환, 1999, 「단군전승의 유형(I)」 『중앙사론』 12, 중앙사학연구회,
김성환, 1999,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 단국사학회
김성환, 2000,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연구』 3, 단군학회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
아역사재단

- 김성환, 2022,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경, 1984,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4-4.
-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동신, 2007,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 남동신, 2019,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 박광연, 2018,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古記』 연구의 흐름」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 박대재, 2015, 「檀君紀元과 古記」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 박대재, 2022,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논총』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서영대, 1997, 「高句麗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만경이충희선생화갑기념 동서문화논총』 II, 인하대 동양사연구실
- 신동하, 199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강래, 1992, 「舊三國史論에 대한 제문제-특히 《三國史記》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 한국고대사학회
- 이강래, 2005, 「『三國遺事』의 史書的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0, 한국고대사학회
-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고려사학회
- 李基白, 1978, 「金大問과 그의 史學」 『歷史學報』 77, 역사학회
- 임기환, 2006,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한국고대사학회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 5-3, 日本史學會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學習院大學
- 白鳥庫吉, 1894, 「朝鮮の古傳説考」 『史學雜誌』 5-12, 日本史學會
- 小田省吾, 1926,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2, 朝鮮教育會
- 今西龍, 1910, 「檀君の説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説叢』.
- 高橋亨, 1955,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朝鮮學會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4백년 이상의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다. 그간에 여러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성격부터 성립시기에 이르기까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고조선〉조의 고기가 담고 있는 단군신화는 단군의 어국와 향국을 역년으로 접근한 권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변증을 통해 해석되어왔다. 17~18세기에는 변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리학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그 신화는 황탄하고 佛說에 둘러싸인 것으로 비판되었다. 괴력난신이 일연을 통해 神異로 전환된 앞 시대의 시선과는 전혀 달랐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단군신화를 조선 상고사의 서두에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어용학자들은 17~18세기 고기의 연구성과를 고조선 부정론에 역이용했다. 시라도리 쿠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에게서 〈고조선〉조 고기의 단군신화는 佛說에 근거해서 승려가 허구로 지어낸 가공의 仙譚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필원잡기》와 《연려실기술》에서 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전거로 실은 단군전승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고조선〉조 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비교적 근래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여전히 그 실체를 삼한고기 또는 해동고기로 검토하는 시각도 있고, 단일서명으로서의 《고기》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다. ‘옛 기록’이라는 자의를 존중하는 견해도 있다. 그 성립시기에 대해서도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검토되기도 하고, 〈북부여〉조 고기에서 분주된 “大遼 醫州界”와 관련하여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 고려의 건국과 관련해서 검토되었다.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류의 자료에는 단군 고기류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자료군이 있었다. 〈고조선〉조의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 왕력에서 미지의 고기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고조선〉조의 고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였다. 〈고조선〉조에서 고기는 《위서》와 보합의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고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과 추론들을 보완할 새로운 자료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주제어: 〈고조선〉조 고기, 《삼국유사》, 《단군기》, 해동고기, 삼한고기, 일본인어용학자

5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선석열(부경대)

목 차

1. 머리말
2. 단군과 부루·주몽 계보의 검토
3. 단군 중심의 계보와 해모수 중심의 계보
4.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연결고리 하백녀
5. 맺음말

1. 머리말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과 부루·주몽 사이의 계보 전승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 『국사』 『제왕운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기록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석문 자료는 『광개토왕릉비』¹⁾ 등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하백녀라는 계보가 전하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전하거나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관계가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이들 간의 계보에는 하백녀가 연결되어 다양한 계보를 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문헌에서 하백녀와 관련되는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전승

1) 이하 『능비』라 약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가 다양하게 전하는 사서들의 기록을 검토해 보겠다.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전하며, 이와 유사하게 『제왕운기』 등의 다른 기록에는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원래 하백녀와 관계되는 인물은 해모수인데, 이후의 사서에는 하백녀와 단군이 관련되어 있다. 관련 사서를 통해 이들 계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둘째, 이들 사서의 관련 계보 기록을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문헌 기록을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해모수 중심의 계보와 단군 중심의 계보로 대별된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 작업에서는 고구려 당시의 금석문을 참조하여 살펴보겠다.

셋째, 하백녀와 관련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관계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추구하겠다. 이들의 계보는 부자 형제 관계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동부여의 존재 시기를 참조하여 그들 계보의 모순을 밝혀내겠다. 이를 통해 그들간의 계보관계로 설정된 시기가 언제인가를 추구해 볼 것이다.

2. 단군과 부루·주몽 계보의 검토

먼저 『삼국유사』에 의하면 왕력편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로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계보에 대해 다양한 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삼국사기』와 『제왕운기』 등의 기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1 제1대 동명왕 갑신년에 즉위하여 18년을 다스렸고, 성은 高氏이고, 이름은 朱蒙이다. 혹은 鄒蒙라고도 한다. 壇君의 아들이다.²⁾

가)-2 ① 『國史』 「高麗本記」에 이르기를, “시조 東明聖帝의 성은 高氏요 이름은 朱蒙이다. 처음에 北扶餘王 解夫妻가 동부여로 자리를 피하고 나서 부루가 죽으매 金蛙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정을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 河伯의 딸로서 이름은 柳花인데 여

2)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一東明王. 甲申立, 理十八. 姓高, 名朱蒙. 一作鄒蒙. 壇君之子.”

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던 중 때마침 한 사나이가 있어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고 자칭하면서 나를 유인하여 웅심산 아래 압록강 변의 방 속에서 사통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 [세주 : ② 『壇君記』에 이르기를 “[단]군이 西河 河伯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夫妻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③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였다. ④ 『壇君記』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夫妻이다.” 라고 하였으니 부루와 주몽은 異母兄弟일 것이다.” … ⑤ 따라서 高氏로 성을 삼으니[세주 : 본래의 성은 解씨였는데 이제 천제의 아들로써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스스로 高로 성을 삼았다].³⁾

가)-3 시조 東明聖王은 성이 高氏이고 이름은 朱蒙이다. …후에 그 재상 아란불이 말하기를, “일전에 하늘[天]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 회는 그곳을 피하라.’ …” … 옛 도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 칭하며 와서 도움하였다. [東扶餘王] 解夫妻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太白山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河伯의 딸이고 이름은 柳花입니다. 여러 동생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꺾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나라 이름을 高句麗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高를 성씨로 삼았다.⁴⁾

가)-4 시조의 성은 高氏[세주 : 왕이 처음 탄생하자 온 나라가 그를 높였기 때문에 성을 高라고 하였다]로 시호는 東明인데, 활을 잘 쏘았으므로 朱蒙이라 이름하였네[세주 : 부여 사람들은 활을 잘

3)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고구려조 ① “國史高麗本記云. 始祖東明聖帝, 姓言[高]氏, 諱朱蒙. 先是, 北扶餘王解夫妻, 既避地于東扶餘, 及夫妻薨, 金蛙嗣位. 于時得一女子於太白山南優漱水, 問之云,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 知[私]之, 而往不返.’ ” [세주 : ② 壇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妻.” 今攬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 而後產朱蒙. ③ 壇君記云 產子, 名曰夫妻, 夫妻與朱蒙異母兄弟也] … 因以高爲氏[세주 : 牟姓解也. 牟自言是天帝子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

4)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즉위조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 後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 …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及解夫妻薨, 金蛙嗣位. 於是時, 得女子於太白山南優漱水. 問之曰,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下, 鴨淥邊室中私之, 即往不返.” …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쓰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解慕漱이고 어머니는 柳花[세주 : 『本紀』에 이르기를, “漢 神雀 3년 임술년에 天帝가 태자 解慕漱를 보내어 부여왕의 옛 도움에서 놀게 하였다. … 河伯의 세 딸이 우발하에 나와 놀았는데 장녀 유희가 왕에게 붙잡혔다.” 라고 되어 있다. 皇天之자손이자 河伯의 외손자이다.” 5)

가)-1의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주몽의 치세와 성씨 계보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주몽에 관한 계보 전승 가운데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말미에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가)-2에서는 『국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출생과 고구려 건국과정을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단군기』의 관련 전승을 참고하여 단군을 중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의 혈연관계를 전하였다. 단군 관련 기록에 주목하여 『삼국유사』·『삼국사기』·『제왕운기』에서 관련되는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2의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조에서 주몽의 계보에 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주몽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계보 전승을 전하고 있다. ①에서는 『國史』 「高麗本記」를 인용하였는데, 문제의 『국사』가 『삼국사기』인가 아니면 『(구)삼국사』인가 논란이 된다. 『삼국사기』의 각국 本紀를 위의 사료뿐 아니라 후대의 사서에는 本記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본기를 高句麗本紀라고 한 점과 고구려의 시조왕을 東明聖王이라 하였으나, 위의 가)-2 ①에서 高麗本記라고 한 차이와 고구려의 시조왕을 東明聖王이 아닌 東明聖帝라 하여 『삼국사기』의 명칭과 다른 차이가 있는데, 東明聖帝라는 명칭은 현전하는 기록상 『제왕운기』에 처음 보이며 조선시대의 편찬물인 『고려사절요』 등에도 보인다. 『삼국사기』에서 주몽의 난생과 그 이름의 유래를 밝힌 다음 동부여를 탈출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삼국유사』도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⁶⁾ 그러므로 위

5) 『제왕운기』 권下, 고구려기 “麗祖姓高[세주 : 王初誕, 而舉國高之, 因以爲姓], 諡東明, 善射故以朱蒙名[세주 : 扶餘人, 名善射爲朱蒙. 父解慕漱母柳花[세주 : 本紀云, “漢神雀三年壬戌, 天帝遣太子解慕漱, 遊扶餘王古都. … 河伯三女, 出遊優淳之河, 長女柳花爲王所止云云.” 皇天之孫河伯甥].

6)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炤]之. 因而有孕生一卵大五升許. 王*弃[棄]之與犬猪皆不食. 又*弃之路牛馬避之. *弃之野鳥獸覆之. 王欲剖之而不能破, *乃[遂]還其母. 母以物裹之, 置於暖處有一*兒[兒]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 *岐嶷[嶷然]異常, 自作弓矢*[射之,]百發百中. *國[扶餘]俗謂善射爲朱蒙, 故以名*焉[云]. 金蛙有七子, 常與朱蒙遊戲, *[其]技能莫及. *[其]長子帶素言於王曰, “朱蒙非人所生, 若不早圖, 恐有後患. *[請除之]”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 *[而]減食令瘦, 鴛者善養令肥. 王自乘, 肥瘦者給蒙. *[後獵于野, 以朱蒙善射, 與其矢小, 而朱蒙殫獸甚

의 『國史』 「高麗本記」는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①에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주몽 계보와 관련된 설화를 인용하면서 주몽의 부모가 북부여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라고 전하고 있다. 세주 ②의 밑줄친 부분과 같이 『단군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부루라고 하였다. ③에서는 ①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주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하백의 딸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한편, ④에서 『삼국유사』 찬자는 앞의 전승을 종합하여 부루와 주몽을 이모형제라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찬자가 해모수와 단군이 상관한 하백의 딸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언급해야 할 것은 부루와 주몽의 혈연관계를 이모형제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단군의 아들로 전하는 부루와 해모수의 아들로 전하는 주몽은 어머니가 유화인 점에서 이모형제라고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서로 다른 점에서는 이부형제이다. 한국 고대의 계보 전승에 의하면 모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모형제 또는 이모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모형제라고 해야 합당하다. 즉 양자의 관계를 이모형제라고 한 것은 『삼국유사』 찬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⑤에서는 주몽의 원래 성씨가 해씨였으나, 스스로 고씨로 성씨를 고쳤다고 하였다. 주몽의 원래 성씨가 해씨였다고 한 점은 고구려 초기 왕계에 대한 논란을 해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주몽이 원래 해씨라고 한 것은 가)-2 ①의 『삼국유사』에 인용한 가)-3의 『삼국사기』 계보 기록을 근거로 하여 그의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점을 통해 해씨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주몽과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가 해씨⁷⁾였다고 한 점과도 상통한다.⁸⁾

多] 王之諸子與*〔王子及〕諸臣將*〔又〕謀害*〔殺〕之，蒙母*〔陰〕知之，告曰，“國人將害汝，以汝才畧何往不可。宜速圖之。*〔與其遲留而受辱，不若遠適以有爲〕” 참고로 *〔〕표시의 부분은 『삼국유사』와 대조한 『삼국사기』의 부분을 말한다. 대부분은 弃〔棄〕와 같이 同意異字를 쓰거나, 일부에는 *〔其〕와 같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더라도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였다.

7) 『삼국유사』 권1, 왕력 유리왕조 “東明子立。壬寅，理三十六年。姓解氏”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삼국사기』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인용된 『구삼국사』에 따르면 유리에겐 신성한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몽과 유리는 소속 집단도 각기 계루부와 소노부로 구별되며(김용선, 「고구려 유리왕고」 『역사학보』 87, 1980, 52~56쪽), 양자가 혈통이 다를 뿐 아니라(이귀숙, 「고구려 초기의 왕통변화와 주몽 시조인식의 성립」 『역사교육논집』 39, 2007, 139~147쪽), 심지어 유리가 무력으로 주몽 집단을 병합했다고 보기도 한다(이종태, 「고구려 태조왕계의 등장과 주몽 국조지식의 성립」, 『북약사론』 2, 1990, 66~76쪽). 그러나 고구려 왕실이 종전의 전

『삼국유사』 왕력에서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한 근거는 가)-2 ②의 『단군기』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⁹⁾ 다. ④에서 『삼국유사』 찬자가 부루와 주몽을 이모형제라고 추정된 것은, 찬자가 해모수와 단군이 혼인한 하백의 딸에 주목한 것이고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이기에 원래의 성씨가 해씨라고 한 점에서 보더라도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가)-4의 『제왕운기』에 의하면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주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유화라고만 하여 『삼국유사』와 달리 단군과의 혈연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을 통해 보면,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전승을 중요시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단군기』의 기록을 중시하여 단군을 중심으로 주몽과 부루의 계보를 서술하였던 반면에,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서는 주몽과 단군의 관계에 대해 전하지 않았다.

『제왕운기』에서는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비서잡 하백의 딸 사이에서 부루를 낳았다고 하여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와 동일한 인물 계보 인식을 보여준다.¹⁰⁾ 따라서 양자는 같은 실체의 자료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군을 중심으로 한 계보와 해모수를 중심으로 하는 계보에 유화와 혼인관계가 매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계보의 중심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3. 단군 중심의 계보와 해모수 중심의 계보

앞 장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이들 기록은 계보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해모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되는 사료를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승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왕계를 정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자 관계로 설정된 주몽과 유리는 같은 집단에 속하였다고 여겨진다(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243쪽).

8) 『삼국유사』 권1 왕력에 의하면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에서 보면 시조 동명왕 주몽은 고씨였으나, 제2대 유리왕·제3대 대무신왕·제4대 민중왕을 해씨라 명기하고 있으며, 민중왕과 형제관계인 제5대 모본왕도 해씨라고 할 수 있다. 가)-2 ④에서도 주몽을 본래 해씨였다가 고씨로 고친 것으로 보았다. 『삼국사기』에는 시조 주몽이 고씨라고 하고 이후 위의 왕들에 대해 성씨를 명기하지 않았다.

9) 오강원, 「전근대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대과정과 맥락」 『진단학보』 124. 2015, 4쪽.

10)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193쪽.

나)-1 먼저 부여[세주 : 『檀君本紀』에 이르기를, [필자 주 : 단군은 “非西岬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아이를 낳고 夫妻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되어 있다. …]와 비류왕 칭하며[세주 : 『東明本紀』에 이르기를, “비류왕 송양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仙人의 후손으로 누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으나, 지금 너희들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기대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라 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즉 이 또한 헤아리건대 단군의 후손일 것이다], 다음으로 尸羅와 高禮가 있었으며, 南北沃沮와 濊貊이 이어졌도다. 이와 같은 여러 임금들은 누구의 후손이겠는가? 世系로는 또한 단군으로부터 이어졌도다.¹¹⁾

나)-2 『古記』에 이르기를 “『前漢書』에 宣帝 神爵 3년 임술년 4월 8일에 天帝가 五龍車를 타고 訖升骨城¹²⁾[세주 : 大遼의 醫州¹³⁾지역에 있다]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으로 일컬어 나라 이름을 北扶餘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 解慕漱라 칭하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扶婁¹⁴⁾라 하고 解로써 성씨를 삼았다. 그 후 왕은 上帝의 명령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東明帝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¹⁵⁾

나)-1은 『제왕운기』 사군조로서 먼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루를 낳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명본기』를 인용하여 비류왕 송양이 선인[왕검]의 후예일 뿐 아니라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또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였다.

11) 『제왕운기』 권하, 因分此地爲四郡조. 先以扶餘[세주 : 檀君本紀曰, “與非西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妻.”] … 沸流稱[세주 :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則此亦疑檀君之後也.], 次有尸羅與高禮, 南北沃沮穢貊膺. 此諸君長間誰後, 世系亦自檀君承.

1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 즉위조에는 졸본천에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이 성은 고구려 최초의 도성으로 지금의 중국 요녕성 환인현 유가구촌 동쪽 산 정상에 위치한 오녀산성에 비정된다(노태돈, 「주몽의 출자전승과 계루부의 기원」 『한국고대사논총』 5, 1993).

13) 遼의 의주는 오늘날 중국 요녕성 북진현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53쪽).

14)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조에서는 해부루를 동부여로 보낸 천제의 아들이 해모수이고, 해부루의 옛 도읍지에 해모수가 도읍한 것으로 되어 있다.

15)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北扶餘조.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 [세주 : 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 移都于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 而興立都于卒牟州, 爲卒牟扶餘, 即高句麗之始.”

『제왕운기』의 『단군본기』는 단군이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 하백의 출신지를 비서잡이라 하였으나, 『삼국유사』의 『단군기』(가)-2 ③에 단군이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 하백의 출신지를 서하라고 하였다. 전자의 비서잡은 평안북도 영변으로 단군의 사적이 전하고 있으며,¹⁶⁾ 후자의 서하는 고려시대에 은률군의 별호였던 점¹⁷⁾을 참고하면 황해도 은률군에 비정된다. 이 두 지역은 단군신화와 관련이 깊다. 황해도 은율군은 구월산이 있고 평안북도 영변군은 묘향산이 있다. 은률군의 구월산은 단군이 수도를 평양에 정하였다가 이곳 구월산에 옮기고 천 몇백여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하고 아사달봉이 있다. 산에는 단군에 관련한 유적이 곳곳에 있는데 단군이 있었다는 장당경, 환인·환웅·단군을 모시는 三聖祠, 단군이 올라가 나라의 지리를 살폈다는 단군대 등이 있다. 영변의 묘향산은 일명 태백산이라고도 하여 단군신화에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고 하였는 바, 『삼국유사』 찬자는 이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비정하였다. 고려 중기 이후 묘향산이 단군 신앙과 결부되어 우리 민족의 숭배의 대상이 된 점도 참조된다. 이 두 지역은 단군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서 주목을 끈다. 단군의 혼인을 통해 낳는 아들이 부루인 점은 같으나, 두 지명의 위치가 다른 점에서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다른 책으로 볼 수 있다.

『제왕운기』의 『동명본기』에 언급된 비류국에 대한 세주의 설명은 『삼국사기』의 동명성왕본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비류왕 송양에 대해 선인이라 한 점을 들어 그 찬자는 단군선인의 후손일 것으로 판단하고,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또한 世系 상으로 단군의 후손이라고 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高禮 즉 고구려왕의 世系가 단군과 관련된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는 주몽이 아니라 비류국왕 송양을 선인왕점의 후손이라 한 점은 『삼국유사』 왕력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 한 점과도 다르다.¹⁸⁾

여기서 비류(국)왕 송양과 관련된 기록을 앞의 가)-2 ⑤에서 주몽이 해씨

16) 『輿地圖書』 上(한국사료총서 제20집) 平安道 寧邊 고적조, “在府西北四十里 … 太伯山, 古記昔有天神桓因, 命庶子雄持天符三印, 率徒三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 主人間三百六十餘事, 時有一熊常祝于神願作人身, 神遺靈藥使食熊食之化爲女神, 因假化爲昏而生子, 是爲檀君, 立國號曰朝鮮,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妻”

17) 『고려사』 권58, 地理 제3, 西海道 풍주조. “豐州本高句麗仇乙縣, 高麗初, 改今名. 成宗十四年, 陞爲都護府. 顯宗九年, 置防禦使. 別號西河”

18) 비류국은 원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이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경우 위만조선에 복속되어 있다가 멸망 이후 현도군이 되었다. 그 치소가 고구려현이었던 점도 상기해 볼 경우 주몽 등장 이전에 존재한 원고구려세력이 고조선의 지배 하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비류국왕의 세계를 단군과 연결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한다.

라고 한 점과 참조해 보면 기존의 논란을 재검토해 볼 수 있다. 松壤의 ‘壤’이 ‘奴’ 혹은 ‘那’와 통한다고 여겨, 이를 특정 왕의 이름이 아니라 소노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주몽이 송양과 주도권을 다투어 승리한 일화는 주몽으로 대표되는 계루부와 송양으로 대표되는 소노부 사이의 대립 결과, 계루부가 승리하여 일대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송양의 전승이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교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반면 그와는 달리 계루부에서 소노부로의 왕실교체가 유리명왕 시기²⁰⁾ 내지 태조왕 시기²¹⁾에 주목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모본왕의 죽음과 태조왕의 즉위 사이에 단절 현상이 보인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몽을 해씨라고 한 기록은 고주몽과 그 아들 해유리의 성씨에 대한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 이후 어느 시기에 고구려 왕실의 성씨를 고씨로 확정하였는가에 관해서는 또다시 남게 될 것이다.

나)-2는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인용된 『古記』의 내용이다. 천제가 강림하여 해모수라 자칭하고 아들 부루를 해씨로 하였으며, 해부루는 상제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이동하고 동명제 즉 주몽이 북부여에서 이동하여 졸본부여가 되어 고구려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같은 『삼국유사』의 고구려조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많다.

첫째, 북부여조에는 천제가 해모수라 자칭하였다고 한 반면에, 고구려조에는 천제의 아들이 해모수라 하였다.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 의하면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이라 하였고, 고구려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고구려조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능비』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북부여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비문과 비교해 보면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가 해모수라고 한 북부여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1차 사료라 할 수 있는 『능비』의 문장이 고구려 시조전승이 보다 신뢰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조에 『단군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하백의 딸 사이에 夫妻를

19)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59~362쪽;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58쪽;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04, 175~176쪽;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47~48쪽.

20) 金龍善, 「高句麗 琉璃王 考」, 『歷史學報』 87, 1980, 60~62쪽; 김기홍, 『고구려 건국사』, 창작과 비평사, 2002, 32~34쪽.

21)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16쪽; 李鍾泰, 「고구려 太祖王系의 등장과 朱蒙國祖意識의 성립」, 『北岳史論』 2, 1990, 76~83쪽; 김종은,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淑明韓國史論』 3, 2003, 43~49쪽; 권순홍, 「고구려 초기의 都城과 改都-태조왕대의 왕실교체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216~220쪽.

낳았다고 하였으나, 북부여조에는 해모수가 아들 扶婁를 낳았다고 하나 누구와 혼인하였는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두 기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단군의 아들 이름을 ‘夫婁’라고 표기한 반면에, 해모수의 아들 이름을 ‘扶婁’라고 표기하여 이름의 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찍이 신채호는 夫婁를 단군의 아들로 추정하였다.²²⁾ 부루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쟁점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단군과 해모수를 별개의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모수를 환웅에 비정하고 주몽을 단군왕검에 비정하는 견해²³⁾가 있다. 이에 대해 단군신화를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太白山·朝鮮·阿斯達는 일반적으로 태양숭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檀君도 샤만을 의미하는 ‘당글’ 또는 ‘하늘’을 의미하는 몽고어 ‘탱그리’와 관련하여 ‘天君’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글’ 또는 ‘탱그리’를 굳이 ‘檀君’으로 음寫한 것은 혹 魏志 동이전 濊에 보이는 ‘樂浪檀弓’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檀君과 弓射의 관계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단군신화의 태양숭배도 이미 弓射와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사달의 일명 弓忽山도 이런 각도에서 다시 음미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닐까. 즉 전자는 태양, 후자는 弓射를 각각 부각시켜, 양자가 함께 태양신앙과 궁사의 결합을 표현한 것이다.²⁴⁾ 여기서 볼 때 단군과 관련되는 단군 즉 활과 활을 잘 쏘는 자를 주몽이라 부른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 면을 시사하고 있으나, 善射者는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王者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동명신화에 잘 드러나 있듯이 태양신앙과 궁사의 결합은 보편적인 관념이며 단군신화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夫婁’와 ‘扶婁’로 다르게 표기하였더라도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이동한 존재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표기상의 차이를 들어 다른 인물로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북부여조의 『고기』는 고조선조의 『고기』와 같은 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구려조에는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였으나, 북부여조에는 해모수와 주몽의 혈연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부여조에는 동명제 즉 주몽이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움을 세워 고구려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古記』에서 볼 때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

22) 申采浩, 『朝鮮上古史』(1931); 『丹齋申采浩全集(上)』, 丹齋 申采浩先生 紀念事業會, 1987, 81쪽.

23) 최남선, 「朝鮮의 神話」, 『六堂崔南善全集』 5, 매일신보사, 1939, 24쪽.

24) 이성규,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신편 한국사』 1(한국사의 전개), 국사편찬위원회, 2002, 151쪽.

다고 하면서도 주몽이 해모수의 북부여를 이어 고구려가 시작되었다고 한 것은 일면 모순되어 보이기 는 하지만, 주몽도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계보 전승은 『능비』에서 “옛적에 始祖 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출자는 북부여이며 천제의 아들”²⁵⁾이라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해모수의 아들인 부루와 주몽은 북부여에서 이동하여 각각 동부여와 고구려를 세웠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모순점이 드러난다.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 의하면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낳은 주몽이 동부여왕 해부루의 아들인 금와에 의해 양육된 것이라 한 점은 계보관계에서 보면 북부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부여조에서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루라고 한 점을 기준으로 삼아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와 『삼국유사』 고구려조를 비교하면, 해모수의 손자였던 금와가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을 거두어 길렀다는 것은 世系 상의 오류가 심하여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이다. 『능비』의 문장에 의하면, “영락 20년(410) 경술년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도중에 배반하여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²⁶⁾고 하였다. 여기서 동부여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속민이었다는 서술은 위의 기록들과 대조해 보면 의문이다.

앞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동부여는 원래 주몽이 성장한 곳이다. 그곳에서 탈출하여 압록강 중류역의 졸본지역으로 와서 고구려를 건국하였고, 이 당시 동부여는 고구려를 압박한 이후 대무신왕 때까지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었을 정도로 세력이 컸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동부여가 동명성왕 때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라 한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북부여에서 이동한 동부여의 위치는 두만강유역에 해당되는데, 『삼국지』 위서동이전을 살펴보면 3세기 중엽까지 이곳은 북옥저가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동부여가 이곳에 들어 서야 한다.

『능비』의 문장에 나오는 동부여에 대한 견해 가운데 본래의 부여가 285년 선비족 모용외의 침공을 받고 옥저 지역으로 피난한 점에 주목하여 그곳에 남아 있던 잔여 세력이 3세기 말엽에 세운 나라로 보는 견해²⁷⁾가 가장

25) 『광개토왕릉비』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扶餘，天帝之子”

26) 『광개토왕릉비』 “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

27)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523~525쪽.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동부여가 역사 속에 존재한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이전이 아니라, 3세기 말엽에 두만강하류역으로 이동하여 고구려의 통제를 받고 있다가 410년 광개토왕에 의해 완전히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동부여를 매개로 한 관련 계보의 구성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백녀가 연결고리가 되어 단군·부루·주몽 계보가 구성되게 되었는데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4.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연결고리 하백녀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들어 주몽은 부모가 해모수와 유화라고 전하면서도 『단군기』에서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 즉 유화와 관계하여 낳은 부루와 주몽이 형제라고 하였을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군 및 해모수와 혼인한 화백의 딸은 여러 기록에 서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하백의 딸은 유화로서 해모수와 혼인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전한다. 『제왕운기』에서는 여러 사서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고구려기에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주석을 달아 그대로 전하면서 주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하백의 장녀 유화라고 하였다. 다음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잡 하백의 딸과 혼인하였다고만 하였다. 『동명본기』 즉 『삼국사기』의 동명성왕본기를 인용하여 송양이 선인왕검의 후손이라 하면서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또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여 포괄적인 단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여러 사서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고구려조에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였고, 다음 『단군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부루를 낳았다고 하였다. 북부여조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해모수와 그 아들 부루를 언급하는 한편으로, 주몽이 북부여를 이었다고 하였다.

이들 사서의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서는 주몽과 단군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삼국유사』는 왕력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 하고 『단군기』를 인용하면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 부루와 이모형제라고 하여 주몽과 단군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려 하였다.

이들 기록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하백녀와의 연결이다. 『삼국사기』를 제외하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그보다 앞서 편찬된 사서를 인용하였으

므로, 그 사서를 원전으로 다루어 살펴보아야 한다.

계보가 유화와 단군으로 연결되는 기록으로는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있다. 계보가 유화와 해모수로 연결되는 기록으로는 『삼국사기』가 대표적인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이를 인용하여 다양한 계보를 소개하고 추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삼국유사』는 다른 한편으로 『고기』를 인용하여 해모수와 부루·주몽 사이의 계보를 연결하였으나, 유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삼국유사』에만 언급되어 있는 『고기』는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전하면서 단군의 부모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단군 이후부터의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서도 해모수의 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고기』에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새롭게 요약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삼국사기』보다 후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하백의 근거지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점에서 같은 책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사서를 『고기』와 비교해 보면, 보다 후대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단군신화에서 인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군신화에서 단군 다음을 기자로 서술함으로써 단군의 혼인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을 담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단군을 이은 것이 기자로 설정함으로써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부루가 북부여왕으로 되었다는 내용을 인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단군기』의 내용을 『삼국사기』의 다음 부분에 인용하여 양자를 대조하였으며, 북부여조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였다. 『제왕운기』는 『단군기』가 아닌 『단군본기』의 하백녀와 단군의 혼인에 의한 부루의 탄생을 인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 가운데 비류왕 송양이 단군의 후손임을 인용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단군의 후손임을 천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원래는 하백녀와 혼인한 것은 해모수이지만, 그후에 하백녀가 단군과도 혼인한 것으로 견강부회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면서 1131년 평양구려선인은 지역신으로서의 서경신 평양신이 국조신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대몽항쟁의 식에서 단군을 국조로 재인식하게 되었다.²⁸⁾ 또 하나의 견해로는 12세기 전엽에 『단군기』 『단군본기』에서 단군신화와 북부여 개국신화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단군과 같은 천제의 아들로 되어 있는 해모수를 아들로 설정할 수 없어 부루를 아들로 설정하게 되었고 유화를 거명하지 않고 서하 또는 비서

28) 조경철, 「근대 이전 한국사 속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110~111쪽.

갑 하백녀로 수정하여 단군의 아내로 설정하였다고 하였다.²⁹⁾ 그러나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는 『삼국사기』보다 후대에 편찬되었겠지만,³⁰⁾ 『제왕운기』와 『삼국유사』보다는 먼저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명왕편』에 하백녀와 단군이 관련된 서술이 없으므로, 이들 사서는 『동명왕편』 이후에서 『제왕운기』가 편찬되기 이전의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백녀를 매개로 한 단군을 중심으로 부루와 주몽을 계보 상으로 연결짓게 되었고,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이를 수렴하여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또한 단군의 후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관계에 대해 『삼국사기』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 『제왕운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가 다양하게 전하는 사서들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제왕운기』와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에 보이는 관련 계보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주몽이 해모수와 하백녀에 혈연관계를 언급한 다음에 『단군기』의 기록을 중시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녀를 중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의 계보를 서술하였으나, 주몽이 해모수와 관련하여 해씨였다고 한 점에서 왕력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추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주몽이 해모수와 하백녀에 혈연관계를 언급하였으나,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녀를 중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의 계보관계를 서술하였다.

둘째, 앞서 검토해본 계보관계를 단군을 중심으로 한 계보와 해모수를 중심으로 하는 계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 부여 외에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또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였으나, 『삼

29) 오강원 앞의 논문, 13쪽.

30) 『단군기』·『단군본기』의 편찬을 고려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김광수,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역사교육』 43, 1988, 99~100쪽), 고려 중기 이전에는 편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23쪽).

국유사』에서는 이러한 계승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와 관련되어 중요한 것은 두 계보의 관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이다.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해모수 중심의 관계를 구성하였으나,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하백녀를 중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의 계보관계를 서술하였다. 이들 계보관계에는 하백녀가 매개 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셋째, 하백녀와 관련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관계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추구하겠다. 우선 검토한 것은 계보기록에 매개역을 한 동부여의 존재 시기가 3세기 말엽에서 5세기 초엽이라는 점인데, 그들 계보에 혼란을 초래한 夫婁와 扶婁의 문제를 밝혀내었다. 본고에서 밝히고자 한 하백녀와 관련해 보면 『단군기』에서 서하 하백녀와 『단군본기』의 비서갑 하백녀라는 기록은 서하가 황해도 은률군에 비정되고 비서갑이 평안북도 영변군에 비정되는 점에서 출신 지역이 다르므로 양 사서는 동일한 사서가 아니다. 원래는 하백녀와 혼인한 것은 해모수이지만, 그 후에 하백녀가 단군과도 혼인한 것으로 견강부회한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면서 1131년 평양구려선인은 지역신으로서의 서경신 평양신이 국조신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대몽항쟁의식에서 단군을 국조로 재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하백녀를 연결고리로 삼아 단군 중심의 계보를 구성한 것이다.

【參考文獻】

1. 사료

『檀君記』 『檀君本記』 『國史』 『古記』 『三國史記』 『帝王韻紀』 『三國遺事』 『廣開土王陵碑』 『천남산묘지명』 『趙延壽墓誌銘』

2. 논저

申采浩, 『朝鮮上古史』 (1931); 『丹齋申采浩全集(上)』, 丹齋 申采浩先生 紀念事業會, 1987.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최남선, 『六堂崔南善全集』 5, 매일신보사, 1939.

3. 논문

김광수, 「고려조의 고구려계승의식과 고조선인식」 『역사교육』 43, 1988.

김성환, 「고려시대 평양의 단군전승」, 『문화사학』 10, , 1999.

김용선, 「고구려 유리왕고」 『역사학보』 87. 1980.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노태돈, 「주몽의 출자전승과 계루부의 기원」 『한국고대사논총』 5, 1993.

오강원, 「진근대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대과정과 맥락」 『진단학보』 124. 2015.

이귀숙, 「고구려 초기의 왕통변화와 주몽 시조인식의 성립」 『역사교육논집』 39, 2007.

이성규,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신편 한국사』 1(한국사의 전개),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이종태, 「고구려 태조왕계의 등장과 주몽국조의식의 성립」, 『북악사론』 2, 1990.

조경철, 「근대 이전 한국사 속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6 근대 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

윤병모(성신여대)

목 차

1. 머리말
2. 시라토리 구라키치 단군론의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3. 이마니시 류 단군론의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4. 이나바 이와키치 단군론의 만선사학과 문제점
5. 맺음말

1. 머리말

근대 일본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단군론을 연구하였다. 그들 중에 가장 먼저 오치아이 나오즈미(落合直澄)가 등장하는데 그는 그의 「단군」이라는 논고에서 단군을 일본속의 신화적 인물인 스사노오(須佐之男)의 아들인 이타케루노가미(五十猛神)라고 주장했다.¹⁾ 이런 단군에 대한 이타케루노가미설은 같은 일본인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졌다. 곧 단군의 이타케루노가미설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퍼진 일선동조론의 한 변이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일선동조론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고 조선인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확대 재생산된 식민사관에 해당한다.²⁾ 양상을 달리해도 단군부정론에 대한 관점은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1) 落合直澄,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藏版, 1888, 23~25쪽.

2) 장신,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戔鳴鮮尊 신화」, 『역사문제연구』 21,

에게도 이어지며 하야시 다이스케는 단군전설에 대해 신인(神人)이 단목 아래 내려와 단군이 되었다며 이를 황당무계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오치아이 나오즈미의 단군에 대한 이타케루노가미 설도 또한 부정하였다.³⁾ 요시다 도고(吉田東伍)는 단군이 태백산에 내려왔다고 하는 부여가 남점(南漸)한 것으로 기자조선 이전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⁴⁾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불신하여 모두 황당불경한 이야기라며 엄격한 비판을 가하였다.⁵⁾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는 단군전설이 북한 지방에서 생긴 것으로 한반도 고유의 한민족이 서식했던 남한지방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⁶⁾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단군전설에 대해 반도북부에 불교가 전래되어 형성된 것으로 전설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하나의 소설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한다.⁷⁾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지냈던 오다 쇼고(小田省吾)⁸⁾는 단군전설이 고구려 시조의 출현을 단군에 결부시키고 이를 불교의 제석천에 갖다 붙였다고 주장한다.⁹⁾ 이외에 아오야나기 난메이(靑柳南冥)는 일선동조론의 입장에서 단군부정을 주장하였다.¹⁰⁾

이처럼 1895년 청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의 단군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¹¹⁾ 대부분의 일본인 연구자에 있어 식민지 조선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단군 존재에 대한 자체를 부정하는 단군부정론이었다. 이런 단군부정론은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들에게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단군부정론의 핵심은 단군이 후대의 가탁된 인물이라는 것에 있다.¹²⁾

이상의 단군부정론을 포함하여 근대시기 일본인 중에 많은 사람이 단군론을 언급하였다. 일본인의 단군론을 비교적 완성도 높게 작성한 인물은 다음의 세 사람이다. 그 세 사람 중에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본격적인 일본인 단군론 연구 또는 만선사(滿鮮史)의 창시자로 거론하여야 하고 이마니시 류는

2009, 365쪽.

3)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藏版, 1892, 58-59쪽.

4)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93-95쪽.

5) 那珂通世, 「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5編3號, 日本史學會, 1894, 27-35쪽.

6) 三浦周行, 『歴史と地理』第1卷第5號, 史學地理學同友會, 1918, 6-11쪽.

7) 高橋亨, 『檀君傳説に就きて』, 同源社, 1920, 5-16쪽.

8) 채미하, 「일제강점기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東아시아古代學』55, 2019, 385쪽.

9) 小田省吾, 『文教の朝鮮』Vol.-No.2, 朝鮮教育會, 1926, 32-40쪽.

10) 靑柳南冥, 『朝鮮史話と史蹟』, 朝鮮研究會, 1927, 1-7쪽.

11) 이영화, 「일제시기 단군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韓國史學史學報』22, 2010, 33쪽.

12) 이영화, 앞의 논문, 2010, 8쪽.

일인 단군론의 완성자 또는 만선사의 계승자로, 이나바 이와키치는 만선사의 완성자로 또는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한 일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인물들이다. 만선사는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동양사학계가 만들어 낸 것으로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는 물론 만주진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사학으로 자리매김한다.¹³⁾ 또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는 단군신화의 후대 창안설을 주장한 사람들로 유명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와 연구된 단군론은 일인들이 연구한 것과 한국인이 연구한 것이 있다. 일인 가운데는 근대 이후 일본인이 단군론을 연구한 대부분의 것을 정리한 것이 있고¹⁴⁾ 일선동조론과¹⁵⁾ 만선사 입장에서 서술된 것도 있다.¹⁶⁾ 한국인의 연구도 일인 연구자 개인에 대한 연구¹⁷⁾와 만선사,¹⁸⁾ 단군신화의 신화소를 중점 분석한 견해¹⁹⁾도 있다.

이상에 관련된 단군론은 필자마다 그 주장이 조금씩 다르고 논지도 다른 만큼 이를 다루어야 할 내용도 틀려지게 마련이다. 이에 관해 이상의 3인 즉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의 단군론에 대해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의 관점에서 이를 집중 살펴본다.

2. 시라토리 구라키치 단군론의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1865년에 나서 1942년에 작고했는데 일본의 역사학자로 전공은 서양사를 선택했으나 나중에 동양사로 방향을 틀었다. 도쿄대학 문과대학 곧 훗날의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1886년에 졸업하였고 1900년에는 문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스승은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이며 제자로는 츠다 소키치를 두었다.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에는 독일의 유대계 역사학자인 리스(Ludwig Riess)로부터 실증사학을 배운다. 학습원 교수와

13)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65쪽.

14) 사쿠라자와 아이, 「근대 일본에서의 단군론의 성립」, 『인문학연구』 31, 2016; 北山祥子, 「日本人の檀君研究」, 『韓日關係史研究』 74, 2021.

15) 保坂祐二, 「崔南善의 不成文化圈과 日鮮同祖論」, 『韓日關係史研究』, 2000.

16) 타키자와 노리오키, 「이나바 이와키치 稻葉岩吉와 만선사 滿鮮史」, 『한일관계사연구』 19, 2003; 井上直樹, 「稻葉君山の檀君神話認識」, 『韓日關係史研究』 74, 2021.

17)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2013; 정준영,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2017.

18) 박찬홍, 앞의 논문, 2009; 박찬홍,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19)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韓日關係史研究』 74, 2021.

함께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14년부터 14년간 동궁시절 쇼와(昭和)의 교육도 담당했으며 1925년에 도쿄제국대학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며 그만둔다.

시라토리는 조선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의 역사와 민속, 전설, 언어, 종교, 고고학 등 다양한 방면에 연구를 하여 문헌학과의 시라토리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후 시라토리는 이나바 이와키치 등과 함께 만선사를 외치며 일본의 조선과 남만주 지배를 주장하였다.

시라토리는 일본 관학 아카데미즘의 중추로 존재하고 또 만선사를 처음 주창한 인물로 알려지는데, 만선사는 만주사와 조선사를 합친 용어로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남만주 침략에 그 공격목표를 바꾸었고 이때 시라토리 등 연구자들의 관심은 만주 전체와 몽골로 까지 확대되었다. 시라토리 등이 주장하는 만선사에서의 조선은 조선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에 불과하며 이는 반도적 성격론에 근거한 타율성과도 직결된다. 시라토리는 본래 고구려사를 조선사로 인식하였으나 러일전쟁 이후 만선사를 주장하며 고구려를 만주사에 포함시킨다.²⁰⁾

시라토리가 만선사의 창시자로, 이나바가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하여 용어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만선사, 만선사학, 만선불가분론, 만선일체론은 모두 식민사학의 범주 안에 있는 용어로 정리된다. 시라토리는 1908년 만철(滿鐵)의 총재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후원으로 만선사 연구의 심장인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을 도쿄지사에 설치한다. 만철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로 대련에 그 본부를 두었으며 관동군과 함께 만주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만선사도 이런 배경 속에 탄생한다. 시라토리가 이끄는 만선역사지리조사실에는 이나바 이와키치,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이 참여하며 식민사학이 짙은 만선사를 만들어 내게 된다.²¹⁾ 만선역사지리조사실에서는 『만주역사지리』와 『조선역사지리』 등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은 이후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 16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케우치는 만선사학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인식되며,²²⁾ 전후에 『만선사연구』라는 이름으로 전집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의 연구는 오늘날

20) 박찬홍, 앞의 논문, 2009, 75~81쪽.

21)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298쪽.

22) 박찬홍,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한국고대사 시기구분과 고조선·한사군 연구」, 『역사와 담론』 84, 2017, 3쪽.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시점의 일본 동양사학계에는 만선사라는 연구분야는 없다. 다만 만선사라는 타이틀로 시라토리나 이마니시, 이나바, 이케우치를 연구하는 분야는 현재 한일 양국에 존재한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에 대해 그의 스승인 나카 미치요보다도 더욱 구체적으로 후세 불교도의 창작이라는 주장을 적극 펼친다. 학술적인 면에서 단군을 처음으로 비판한 인물은 시라토리로 곧 『삼국유사』에 보이는 불교사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단군신화는 본래 불교설화에 근거한 가공(架空)의 선담(仙談)이라거나 고구려인의 손에 만들어진 가작담(假作談)이라 주장했다.²³⁾ 시라토리의 단군에 대한 인식은 확실한 실증성과 전문성이 월등히 향상된 일본인의 본격적인 단군론이라 할 수 있지만,²⁴⁾ 반면에 시라토리의 단군연구는 그 정치적 목표나 조선비하 등의 편견이 감안되어 있지 않은 주장이라는 견해도 나온다.²⁵⁾ 이런 견해들을 모두 감안하여 시라토리의 주장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군의 사적은 원래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仙譚)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환웅(桓雄) 또는 단군이 강림했다는 태백산은 평안도에 있는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 … 고기의 단목(檀木)이라 보이는 것은 즉 산중에서 자생하는 향목으로 그것을 단목이라 칭한 것은 전적으로 불국(佛國)의 우두전단(牛頭梅檀)에 비한 것이다. … 단군전설은 승려의 허구로, 태백산이 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기에 이것을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기고 그 향목을 우두전단에 비정(比定)하면서 그 나무 아래 내려온 인연으로 단군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 또 석제환인(釋帝桓因)이 단군의 조부로 정해진 것은 『아비담(阿毗曇)』 안에 환인의 태자 전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단군이라 칭하고 환인의 손자라고 한 것은 아닐까. … 단군의 전설이 확실히 불설의 가작담(假作談)이라 정해진 이상 … 단군에 대해서 실고 있는 서적으로 연대가 명확한 것은 『위서(魏書)』 뿐이다. … 단군전설의 기원은 … 기원 372년에서 … 기원 551년에 이르는 179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아난불가섭원(阿蘭弗迦葉原)도 그야말로 불설에 기반한 허망한 명칭이다. … 단군이 더더욱 고구려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작담(假作談)이란 것에 오류가 없다면 이 전설의 기원은 …

23) 池内宏, 「高句麗の建國傳説と史上の事實」, 『東洋學報』 28-2, 1941; 『滿鮮史研究』 上世編, 吉川弘文館, 1951.

24) 전진국, 「단군신화의 불교적 윤색과 ‘단군’ 명칭에 관한 학술사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298쪽.

25) 장우순, 앞의 논문, 2020, 307쪽.

불법이 점점 흥성하는 무렵 이후일 것이다. … 고구려에서 불법이 흥
통한 것은 장수왕 때였다고 단언하는 이유이며 단군전설이 생긴 것이
이 무렵부터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26)

“조선의 고전설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망탄(妄誕)의 극치는 단군전설
이다. … 환웅단군(桓雄檀君)이 강림했다는 태백산(太伯山)은 평안도
에 있는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을 말한다. … 『고기(古記)』에 단목
(檀木)이라 하고 있는 것은, 즉 이 산중에 자생하는 향목(香木)을 말
하는 것으로, 이것을 단목이라 칭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축(天竺)의 우
두전단(牛頭梅檀)을 모방한 것이다. …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칭하는
것은 필경 이 향목이 자생하고 있음에 의한 것이다. … 이 전설은 승
려의 허탄(虛誕)이며 태백산이 향목이 자생하는 곳에서 이를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정해 그 향목을 우두전단에 견주고, 이 나무 밑으로 내
려온다는 것을 계기로 단군(檀君)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다.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 주몽의 양부(養父)는 금와
(金蛙), 금와의 양부는 부루(夫婁), 부루의 실부(實父)는 단군이 된
다. 그렇다면 단군은 조선국의 선조가 아니고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
됨을 알 수 있다. … 아니 오히려 고구려의 조상으로서 그 나라의 승
려들이 가작(假作)한 인물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27)

시라토리는 1894년 발표된 위의 「단군고」에서 단군부정론을 펼친다.
1894년은 청일전쟁이 발발한 해로 이때부터 시라토리는 만선사를 창시하고
단군을 부정하며 러일전쟁 이후 시라토리는 일본의 만주 진출에 대한 학문
적 배경으로 만선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다. 우선 시라토리의 단군부정에
대해 알아보면 시라토리는 석제환인이 단군의 조부로 정해진 것은 불교경전
인 『아비담』과 『대지도론』에 나오는 환인의 태자인 전단이며 이를 단군
이라 칭하고 환인의 손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제환인이라는 용어가
『법화경』과 『잡아함경』, 『대지도론』 등 고려대장경에는 천여차례 나
오지만 ‘환인’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으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은 석제환인의 줄임말로 환인과 석제(제석)는 같은 단어임에 불
과하다.²⁸⁾ 결국 제석환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태양신으로 보는 견해와 천신

26)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學習院大學, 1894;일본인의 단군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31~47쪽.

27)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説考」, 『史學雜誌』 5編 12號, 日本史學會, 1894;일본인의 단군
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48~57쪽.

28) 조원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으로 보는 견해²⁹⁾가 제기되어 석제환인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³⁰⁾

환인에 대해서도 환인과 환응이 태백산에 강림하였다는 산악신앙과 신단수를 통해 강림한 수목신앙 등 『고기(古記)』에서 인용된 대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신앙에 근거한 점이 확인된다. 즉 『삼국유사』 이전의 문헌자료가 현전하지 않더라도 『고기』에 묘사된 단군신화 그 자체는 오래 전부터 구전되어 온 전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³¹⁾ 또 시라토리는 단군신화의 사실성에 대해 『위서(魏書)』에 천착하고 있으나 이 『위서』의 성립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므로 이 『위서』만 가지고 단군신화를 판단할 수도 없다. 『삼국유사』의 『고기』와 『위서』에 대한 서지학적인 관점은 시라토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고기』는 고려 태조시기에 정리된 기록이라는 점³²⁾과 『위서』는 위만조선 시기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라는 것³³⁾과 그리고 『위서』가 북송 교감본 이전의 고본(古本)이라는 주장이 있다.³⁴⁾ 이런 사실을 다소라도 감안한다면 시라토리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라토리는 『삼국사기』에 단군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란불가섭원도 불교에 근거한 허망한 명칭이라고 주장한다. 단군은 고구려인의 손에 이루어진 가작담으로 특히 불교가 흥성하던 시절인 장수왕 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라토리가 『삼국사기』에 단군이 누락되어 있다며 아란불가섭원을 불교와 연관시키고 그것을 단군과 연결시킨 것은 모순이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에 의해 유교적 관점에 의해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아란불가섭원을 불설에 기반한 허망한 명칭이라 주장한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에 대해 불교의 가작담으로 372년부터 551년까지의 179년 사이 장수왕 때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단군은 조선의 시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조상이라 주장한다. 단군신화가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졌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340쪽.

29) 김성환,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고조선단군학』 3, 2000, 119쪽.

30) 윤성찬, 「단군신화의 제석과 불교의 제석천의 연관성 연구」, 『고조선단군학』 34, 2016, 74쪽.

31) 하카마타 미즈야스,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 『淵民學志』 14, 2010, 470쪽.

32) 박대재,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2015, 8쪽.

33) 丁仲煥,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대하여」, 『大丘史學』 12.13합집, 1977, 8쪽.

34) 朴大在,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韓國史研究』 112, 2001, 112쪽.

다는 시라토리의 견해는 다음 장에서 보듯 이마니시 류의 고려시대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단군신화의 장수왕대설은 시라토리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³⁵⁾ 하지만 시라토리가 단군과 주몽을 한 계통으로 본 것은 문제를 유발한다. 일연이 승려인 점을 고려하여 단군신화를 불교와 유추시킨 것도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곧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 그 자체는 충분히 신화성이 인정되나 불교적 요소가 첨부된 것은 일연에 의한 할주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대한 선담과 가작담 또 단군신화가 장수왕 때 성립하였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시라토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주몽은 금와의 양자이고 금와는 부루의 양자이며 부루는 단군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였다. 시라토리는 금와와 부루, 단군은 모두 구전에 의해 전승된 인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단군과 부루, 주몽에 대한 혈연관계 설정은 후대 국가와의 역사계승성을 천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³⁶⁾ 그럼으로 금와와 부루, 단군은 모두 가작의 인물이라는 시라토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시라토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삼국사기』에 단군은 빼고 금와와 부루는 나오며 이것이 비록 신화적 형태를 가진다 하여도 당시 역사상을 분명하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시라토리는 또 단군 곧 왕검(王儉)은 왕험(王險)으로 이는 바로 평양의 옛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왕험성은 조선이 한나라의 영역이 되기 전의 명칭이라 하였다. 하지만 왕검을 왕험으로만 볼 수 없고 이를 평양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으며 앞서 언급대로 왕검과 평양 문제를 『위서』에만 천착해 볼 수도 없다. 또 평양에 왕검조선 관련 고고학 유물이 없다는 지적³⁷⁾을 경청하면 왕검이 곧 평양일 수는 없다.

시라토리는 앞선 그의 「조선의 고전설고」라는 논문에서 신화와 전설은 역사와 구별되어야 한다며 단군신화를 승도망탄설로 강조한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이 역사와 구별된다고 하면 같은 식민사학자인 오치아이 나오즈미가 그의 「단군」이라는 논고에서 단군을 일본의 신화적 인물인 스사노오의 아들인 이타케루노가미라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된다. 자국의 신화적 인물은

35) 전진국, 앞의 논문, 2022, 304쪽.

36)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34면.

37) 정인성, 「고고학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 『韓國考古學報』 106, 한국고고학회, 2018, 117면.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면서 조선의 신화는 승도망탄설이라 무시하는 태도는 성립할 수 없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가 가공의 선담이라며 단군이 강림했다는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이라 했고 『고기』에 보이는 단목(檀木)도 산에서 자생하는 향목인데 이를 단목이라 한 것은 불교의 우두전단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향목과 단목은 최남선의 지적처럼 전혀 다른 종류에 해당한다.³⁸⁾ 또 전단과 향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근거는 전혀 없고 묘향산의 향목은 조선에서 흔히 자생하는 향나무일 뿐 전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³⁹⁾ 곧 조선 전역의 산에 두루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향나무이기 때문이다.⁴⁰⁾ 실제로 태백산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태백산맥의 종주산으로 존재한다.

시라토리는 제석천이 수미산에 살고 있는 천신의 아들이 태백산에 강림했다는 고대 산악신앙과 『삼국유사』의 할주에 인용된 태백산이 곧 묘향산이라는 불교신앙으로만 파악한 것일 뿐이다.⁴¹⁾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는 견해는 식민지시대 일본인 단군론에서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장에서 거론되는 이나바는 만선사의 입장에서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고 있다.⁴²⁾ 우두전단 문제에 대해 시라토리는 일본의 고전인 『지굴역토집』에 해열의 묘약이라 나와 있어 우두전단이 불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두전단의 단(檀)자에만 집착한 결과로 단군과 전단은 아무 관계가 없다.⁴³⁾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단목의 단(檀)도 최남선에 의하면 단(壇)이 더 오래된 것⁴⁴⁾으로 보아 단(檀)에 집착하는 시라토리의 견해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곧 단군신화가 후세의 불교도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일인 연구자들의 주장은 단군신화와 불교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불교도 창안설은 일본 동양사학의 비조라고 불리는 시라토리에서 비롯된 것임이 지적된다.⁴⁵⁾ 앞서 시라토리의 「단군고」와 「조선의 고전설고」 등

38) 최남선,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39) 이근우,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235면.

40) 윤승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신화 연구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266면.

41) 하카마타 미츠야스, 앞의 논문, 2010, 470쪽.

42) 타키자와 노리오키, 앞의 논문, 2003, 123쪽.

43) 이근우, 앞의 논문, 2021, 13쪽; 전진국, 앞의 논문, 2022, 309쪽.

44) 최남선, 앞의 책, 2013, 60~63쪽.

45) 井上直樹, 앞의 논문, 2021, 40쪽.

2편의 논문이 1894년에 발표되어 만선사를 창시하게 된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곧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 지배층은 조선 다음으로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과 요동반도를 얻었지만 요동반도는 삼국간섭에 의해 곧 상실하게 된다. 삼국간섭의 배경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일제는 러시아와 일전을 겨룰 실력 배양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일제의 군국적 시대 배경에 있어 일인 단군론은 긍정론이 나올 수 없으며 오직 단군부정론만이 대두하게 된다. 즉 시라토리의 단군부정이 만선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일제의 만주진출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런 단군부정론은 3.1운동 이후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 당시에 일어났던 조선의 민족운동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런 단군부정론은 이마니시에게로 이어지며 군국 일제의 충실한 관변사학으로 그 위치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대한 가공의 선담, 가작담, 승도망탄설, 고구려 장수왕시대 창안설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라토리의 이런 주장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단군비판이나 단군부정론의 기초가 되었음을 물론이다.

3. 이마니시 류 단군론의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이마니시 류(今西 龍)는 1875년에 나서 1932년에 작고했는데 1903년 도쿄 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했고 조선사를 전공으로 했다. 1906년 조선의 경주 등지에서 고고학 조사를 했고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평남 용강군에서 점제비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고고학 조사의 과정 속에서 이마니시는 1922년에는 교토제국대학으로부터 「조선고사의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이마니시는 일본의 관학 아카데미즘 속에서 조선사를 자신의 전공으로 표방한 첫 번째 역사학자로 실제 학문 인생에서도 조선사로 시작해서 조선사로 끝난 조선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졌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이마니시는 이나바와 함께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나 대종교 계열의 인사들이 단군을 상징화해서 조선민족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풍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마니시는 시라토리의 견해를 그대로 이어 받아 단군신화에 대한 불설(佛說)을 주장하며 단군부정론을 펼친다.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겸 교토제국대학 교수를 하다가 1932년에 56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이마니시의 「단군고」는 이마니시의 박

사학위 논문인 「조선고사의 연구」의 제1편에 해당한다. 이마니시는 1922년에 교토제국대학에 제출한 자신의 박사논문 일부를 개정하여 1929년에 「단군고」를 발표한 것이었다. 이마니시의 「단군고」는 일본인 학자들이 단군을 연구한 것 중에 내용도 가장 길고 논리도 다양하여 그때까지 단군에 대한 일본인 연구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라토리와 이마니시가 같은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나온 점에서 이마니시가 시라토리 단군론의 충실한 계승자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목차를 보자.

緒言

- 第一章 現存古文献に見ゆる檀君記事
- 第二章 檀君傳説の考査 上
- 第三章 檀君傳説の考査 下
- 第四章 王氏高麗時代の思想と檀君傳説
- 第五章 李朝の國情と檀君傳説
- 第六章 日本に於ける素尊即檀君説の發生
- 第七章 現代の檀君

이상에서처럼 이마니시의 「단군고」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는 고문헌에 보이는 단군 기사를 검토한 것이고 2장과 3장에서는 단군전설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왕조 시대의 단군전설에 대한 검토를 이루며 6장에서는 일본에서 단군전설의 발생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마니시는 스사노오 단군설을 비판하며 이것을 유포시킨 사람들은 대마도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마니시 견해의 밑바탕에는 스사노오 단군설을 받아들이면 단군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7장에서는 현대의 단군을 조명하며 대중교 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장 중에 핵심은 단연 제2장과 제3장의 「단군전설의 고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번역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현대 한민족의 조상인 한족(韓族)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를 신시(神市)라 하고 환웅 천왕이라 일컬었다. … 고조선의 주(註)에서 단군조선(檀君朝鮮)이라고 쓰지 않고 왕검조선(王儉朝鮮)라고 쓴 것, 그리고 단군왕검(檀君王儉)의 네 글자로 하나의 신인(神人)을 칭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그의 본명이 된다. 신인에

계 군호(君號)붙이는 것은 도교를 모방한 것이다. … 왕검선인(王儉仙人)은 왕험성(王險城), 즉 예전의 평양과 인연이 있다고 전해지는 신인(神人)으로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실명을 부르기를 기피하여 지명을 호칭으로 부르게 되어 선인(仙人)이 된 것이다. … 왕검선인이라는 명호(名號)가 전(前) 평양의 지명인 왕험(王險)이라는 것 … 왕검선인은 옛날부터 옛 평양을 수호하는 신인(神人)으로서 그 지역에 전해졌을 것이다. … 단군왕검 선인의 본체는 해모수가 틀림없다. … 단군왕검이 부여와 고구려 등 통구스족의 성자(聖子) 출생 전설과 공통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왕검이라는 칭호는 해모수에 붙여야 할 것이다. … 평양의 옛 이름인 왕검이라는 호칭이 전해진 탓에 이를 고구려 이전의 신인의 호칭으로 삼고 이 신인에게 왕검선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왕검선인(단군)은 부여의 시조인 부루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되고, 이 해모수는 천신을 아버지로 하고 곱을 어머니로 하는 자이며, 이는 현대 조선민족의 선조인 한민족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다. … 왕검선인의 본래 전설은 해모수전설이 민간에 전해진 것으로서 … 제석환인의 신손(神孫)으로 만들고 그 성지를 청천강(淸川江) 상류에 있는 태백산 즉 묘향산에 두었다. 게다가 묘향으로 인해 영목전단(靈木旃檀)의 덕으로 단군이라는 신호(神號)를 부여하여 단군왕검으로 만들고, 이를 조선 전체를 개창한 신인인 것처럼 기원설을 만들고, …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은 묘향산의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박달나무(檀樹)와 인연이 생겨서 단군이라는 호칭이 유래했을 것이다. … 단군전설에 나오는 태백산은 그 주(註)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묘향산이 틀림없다. …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 이를 『고기』라 하여 모두에 게재함으로써 원래 평양이라는 지방의 신에 불과했던 것을 널리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왕검은 신선의 호칭이며,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인데, … 단군이라는 선인의 호칭이 부여되기에 이르렀다.” 46)

이마니시는 환웅 곧 단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가 강조하는 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의 주(註)에 단군조선이라 하지 않고 왕검조선이라 한 것을 고려하여 단군왕검 네 글자를 빌어 하나의 신인(神人)을 지칭했다는 점이다.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본명이며 왕검선인은 왕험성, 곧 예전의 평양과 인연이 있다고 전해

46) 今西 龍, 「檀君考」, 『靑邱說叢』 卷1(京城), 1929年; 일본인의 단군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100~187쪽.

지는 신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인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또 왕검이 신인이라는 견해는 단군신화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전설로 치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낙랑군 치지를 평양 남안의 토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식민지 시기에 왕검을 평양 이외 다른 곳으로 설정할 수 없는 당시 식민사학의 한계에 해당한다. 왕험이 반드시 평양일 수만은 없고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왕험을 본계(本溪)라고 보는 것⁴⁷⁾과 손성자고성(孫城子古城)으로 보는 견해⁴⁸⁾도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니시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마니시는 또 왕검선인 곧 단군은 부여의 시조인 부루와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되고 이 해모수는 천신을 아버지로 하고 꿈을 어머니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마니시는 단군은 부루와 주몽의 아버지로 고조선이 아닌 고구려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단군은 곧 왕검을 가리키며 왕검은 고조선의 정치적 군장을 나타낸다.⁴⁹⁾ 이마니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의 단(壇)자를 버리고 자의적으로 단(檀)자를 취한 점과 단(檀)자에서 불교적 요소를 지적하는 것은 최초의 개국설화를 후대의 지식으로 무리하게 풀어 나간 것에 불과하다.⁵⁰⁾ 단군신화 속의 꿈에 대한 신화소는 한민족과 잘 연계되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⁵¹⁾ 이와 같은 이마니시의 단군부정론은 후일 조선사편수회에서도 연계되며 만선사라는 역사상에도 합류한다.

이마니시는 왕험에게 신인이라는 군호를 붙이는 점은 도교를 모방한 것이라 하며 『삼국유사』의 불교와 도교에 대한 중첩성을 지적한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의 기원에 대해 단군은 본래 부여와 고구려, 만주와 몽고를 포괄하는 퉁구스 민족인 부여의 신인이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마니시를 비롯해서 당시 대부분 일인 연구자들은 단군조선의 실체는 부정하는 반면 기자조선을 내세운다.⁵²⁾ 이마니시에게 단군신화는 고려시대 몽골 외압 속에 버틴 민족 결집의 하나로서 형성된 것이고 오늘날 한반도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한민족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⁵³⁾

47) 김남중, 「險瀆과 고조선의 관계」, 『韓國史學報』 61, 2015, 78쪽.

48) 윤병모, 「위만조선의 대한전(對漢戰)과 왕검성」, 『유라시아문화』 6, 유라시아문화학회, 2022, 343쪽.

49) 박대재,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59쪽.

50)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樹木信仰」, 『韓國史學史學報』 8, 2003, 16쪽.

51)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 『韓國史研究』 118, 2002 2쪽.

52) 정준영, 앞의 논문, 2017, 180쪽.

53) 井上直樹, 앞의 논문, 2021, 51쪽.

이마니시가 신인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단군신화를 도교와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가 본래의 평양선인인 왕검이 고려 시대에 들어와 민족 전체의 조상으로 격상시킨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이마니시만의 독창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며 단군신화에 대한 시라토리의 견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이는 역사상 몽골침략 시대와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던 조선에 대한 차별성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마니시는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수록된 『단군고기』는 고려 인종 때부터 고종 무렵 사이에 쓰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보다 더 오랜 고행(古形)을 보여주고 있는 「묘향산지」⁵⁴⁾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단군고기』의 역사성은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이마니시는 왕검선인은 본래 해모수 전설에서 왔고 그것이 고려시대 승려에 의해 분식되어 제석환인의 자손이 되고 그 성지가 바로 태백산 곧 묘향산이라 했다. 이마니시에게 태백산은 묘향산의 별칭으로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단군의 호칭이 넓게 퍼지며 『삼국유사』에 단군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대신에 왕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마니시가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고 박달나무(檀樹)와 인연이 있어 단군이라는 호칭이 그곳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나 박달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기는 신화는 없다.⁵⁵⁾ 다만 낙랑에 단궁(檀弓)⁵⁶⁾이 나온다는 사료를 보더라도 고조선과 단(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시라토리가 제석환인이라는 용어를 쓴 반면에 이마니시는 제석환인이라는 말을 써서 비록 앞뒤를 바꾼 용어이지만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불교성을 더욱 강조한 측면이 지적된다.

또한 단군의 강림지가 묘향산이라는 이마니시 주장은 단군조선의 강역이 한반도 서북부에 한정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묘향산이 청천강 연변에 있어 청천강이 마치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였던 패수로 인식하게끔 한다. 일인 단군론에 등장하는 시라토리와 츠다, 이케우치는 압록강을 패수로 보았고⁵⁷⁾ 이마니시는 청천강을 패수로 보았다.⁵⁸⁾ 청천강을 패수로 보는 견해는 이마니시에 이어 이병도로 이어지며 현재 주류사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는

54) 雪巖秋鵬, 「妙香山誌」, 『韓國佛教全書』, 동국대, 1988.

55) 신종원, 앞의 논문, 2003, 11쪽.

5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傳30, “樂浪檀弓出其地”

57) 윤병모, 「고조선의 패수와 왕검성」, 『선도문화』 32, 2022, 134~135쪽.

58) 今西 龍, 「洌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1929: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175~230쪽.

다. 때문에 이마니시의 패수 청천강설이 현재까지도 살아남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이마니시와는 다르게 같은 식민사학자인 이나바 이와키치는 만선사의 관점에서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본다. 태백산은 묘향산보다는 백두산으로 비정할 때에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된다.⁵⁹⁾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비정하는 것은 이마니시에게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인 단군론의 태백산은 오로지 묘향산으로만 비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마니시에게 태백산이 묘향산이든 백두산이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군론에 대한 만선사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이마니시에게는 단군신화의 태백산보다도 식민지 조선의 만선사 편입이 더 시급하였던 것이다. 이마니시의 만선사는 1932년 만주에 만주국이 설치되면서 더욱 입장을 공고히 하게 되며 이는 1945년 일제의 패전까지 이어지게 된다. 만선사의 계승자로 이마니시의 단군부정론은 그의 학문적 공고성과 함께 전후까지 미치게 된 것이었다.

단군신화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시라토리의 고구려 시대설과 이마니시의 고려시대라는 견해로 이분법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단군신화의 고구려와 고려시대 창안설은 『삼국유사』를 불교와 억지로 연관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군신화가 후세에 조작되었다든지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인들의 연구는 1920년대 만선사의 흐름과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시라토리와 이마니시 또는 다음 장에 거론하는 이나바 이와키치 모두 만선사와 식민사학의 테두리 안에 단군론이 있음은 물론이다. 식민사학의 특징은 보통 일선동조론과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반도적 성격론이 거론된다.⁶⁰⁾

이런 식민사학의 계보로 이마니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계획에 참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반도사』 편찬계획을 세우고 이마니시에게 『조선반도사』의 상고편을 집필하게 한다. 이마니시는 1916년에 그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가 기획하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촉탁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역사편찬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는 이마니시를 비롯하여 구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와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등 식민사학이 짚은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 이마니시

59) 김성환,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63~67쪽.

60) 정준영, 앞의 논문, 2017, 171쪽.

는 1921년 『조선반도사』의 고대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를 집필하며 조선 총독부에 제출한 것을 기회로 하여 식민지 조선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통사 서술을 꿈꾸었다. 이마니시는 이후로도 1922년의 조선사편찬위원회, 1925년의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사업에서 고대사 부분의 기술을 맡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⁶¹⁾ 이중에 『조선반도사』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났지만 『조선반도사』 상고편의 내용을 보면 이마니시의 만선사와 식민사학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알게 해 준다. 다음을 보자.

“開國神人인 단군전설은 본래 韓民族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한민족은 북방민족이 가지고 있던 야비한 개국전설과 전혀 다른 매우 고상한 고유의 개국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 신화는 오늘날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파편으로나마 남겨진 그 전설을 살펴보면 일본민족의 그것과 유사하여 실로 성스러운 것이다.”⁶²⁾

라고 하며 단군을 인간이 아닌 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마니시는 만선사의 입장에서 단군전설은 본래 한민족과 관계가 없고 한민족 고유의 개국전설은 신라와 가락국의 개국전설에 있다고 하며 또 일본의 개국전설과 비슷하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다. 한민족과 일본민족은 본래 같은 민족을 이루다가 이주의 결과 민족구별이 생겼으나 그 종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한다. 조선의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 주체로서 고양된 단군을 쫓아내는 이마니시의 역사학⁶³⁾은 분명히 식민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같은 이마니시의 단군론은 조선사의 정체성론과도 연결된다. 그런 면에서 시라토리와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성립연대를 고구려와 고려로 한정지으면서 이후 단군신화에 대한 오독(誤讀)을 일으킨은 물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단군론자인 최남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시라토리와 이마니시의 단군신화에 대한 후대 창안설을 다소 비껴나 만선불가분론과 연결시킨 이가 이나바 이와키치였다. 이는 장을 달리해 살펴본다.

4. 이나바 이와키치 단군론의 만선사학과 문제점

61) 심희찬, 앞의 논문, 2013, 288쪽.

6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2008, 144쪽.

63) 심희찬, 앞의 논문, 2013, 306쪽.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1876년에 나서 1940년에 작고했는데 역사학자로 전공은 조선사와 중국사를 겸했다. 1909년 만철조사부에 들어가 「만주조선역사지리조사」 사업에 참여했고 1915년에는 육군대학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위원 겸 간사로 임명되고 1925년부터는 수사관으로 역사서인 『조선사』의 편집에 관여했다. 1932년에 교토제국대학으로부터 조선사 연구로 문학박사의 학위를 받는다. 1938년에 개교한 만주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하였으나 1940년 만주국의 수도인 신jing에서 사망한다. 이나바는 조선민족에 대해 독자의 민족이 아니고 대륙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조선인에는 만주인의 피가 많이 섞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나바는 1919년 3.1운동 이후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단군신화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단군신화의 가공성(架空性)을 거론하는 한편 만선일체론(滿鮮一體論)이나 만선불가분론(滿鮮不可分論)을 주장하였다. 만선불가분론은 만선사라는 용어로 시라토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일본의 확고한 조선통치를 위해 조선과 만주를 같이 지배하려는 견해를 가진다.⁶⁴⁾ 곧 만선사는 일본사의 타자로서 재구성된 것이며 제국주의 일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조선사의 존재는 무시된다.⁶⁵⁾

구체적으로 이나바의 단군론은 민족적 신앙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일 합병으로 기자전설은 소멸하고 대신에 단군전설이 득세하였다고 본 견해이다. 이나바가 기자전설보다 단군신화를 강조한 측면은 있으나 단군부정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나바의 단군부정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단군을 부정하는 것에 편승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음을 보자.

“최육당(崔六堂)군의 최근 작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에 실린 『단군론』은 학계 각 방면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 주몽 즉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 된다. 『삼국사기』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 신라는 박석김 3성은 …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었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설화를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즉 부여 제외는 전혀 별종의 선민(選民)이라는 신념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은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자임하고 그 영토도 영유하고 싶

64) 이노우에 나오키, 「고구려사와 만선사(滿鮮史)」, 『동서인문학』 188, 2017, 187쪽.

65) 이준성, 「만주역사지리의 한사군 연구와 ‘만선사’의 성격」, 『인문과학』 54, 2014, 36쪽.

다고 요망했기 때문이다. 부여계라고 하면 여진이라도 거슬러 올라가 백제라도 말갈이라도 모두 주몽을 선조로 해서 동시에 단군의 아들로 부터 나왔다는 것이 된다.”⁶⁶⁾

이나바는 1926년에 발표한 「단군설화」에서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나바는 『삼국사기』에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고구려와 달리 신라에서는 박석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 주장한다. 곧 백제와 말갈, 여진 등은 모두 부여계라며 이들은 모두 주몽을 조상신으로 삼았고 단군의 아들이라 보았으며 신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씨로 단군설화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단군신화에 대한 용어의 선택에서도 시라토리와 이마니시는 ‘단군전설’이라 하였고 이나바는 ‘단군전설’ 또는 ‘단군설화’라며 단군신화를 폄하하는 용어를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어선택 한 가지만 보아도 일인 연구자들의 단군신화에 대한 불인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마니시는 또 현재의 조선은 외래성(外來姓)이 토착성(土着姓)을 지배했고 단군을 숭배하면 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빈 자리를 일본이 대신 들어올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주장한다.⁶⁷⁾ 이나바는 1922년에 발표된 「조선의 문화문제」⁶⁸⁾에서 단군전설은 신라말기 한 승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후일 조선사편수회에서 고려시대로 그 입장을 바꾸게 된다.

이나바는 고구려와 백제가 만주에서 일어났으며 조선과 만주는 하나의 몸을 가진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하였다. 곧 이나바는 만주와 조선이 민족적으로나 역사적,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견해를 펼친다.⁶⁹⁾ 단군신화를 일본지배에 대한 반대의 표현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며 독립요소의 창이(瘡痍)라고 하여 위협시하였고 그것을 깨기 위해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했던 것이다.⁷⁰⁾ 이나바는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고 단군은 만선사에서 실로 안성맞춤인 존재라며 단군신화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다.⁷¹⁾ 그러나 이나바의 주장이 만선사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66) 稻葉岩吉, 「檀君說話」, 『朝鮮史學』第6號, 朝鮮史學同攷會, 京城, 1926년 6월 15일; 일본인의 단군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92~93쪽.

67) 사쿠라자와 아이, 앞의 논문, 2016, 94쪽.

68) 稻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會史研究』, 大鏡閣, 1922.

69) 稻葉岩吉,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 『支那社會史研究』, 大鏡閣, 1922, 314쪽.

70) 타키자와 노리오키, 앞의 논문, 2003, 122쪽.

71) 稻葉岩吉, 「滿鮮史體系の再認識」, 『靑丘學叢』11, 1933, 23쪽.

된다. 이나바는 또 독립운동의 창이로서 위험시한 것은 단군신화 자체가 아니라 그 신화를 이용하여 민족의 결속을 꾀하려는 조선지식인 곧 최남선 등에 의한 역사서술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나바의 만선사는 당시 조선과 만주 문제에서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일본 만을 위한 역사서술이었다. 이나바가 만선사에서 강조한 것은 조선사회의 타율성 보다는 정체성이었고 대륙으로부터 조선으로의 파동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침략과 그 궤를 같이하는 조선에서의 대륙진출이었다.

“朝鮮人은箕子 傳說의 奉事를 支配者 階級에 一任하고, 따로 새로이 氏族的 信仰의 中心을 慾求하였은 듯하니, 저 檀君傳說이 正히 그것이다.” 72)

이상의 이나바 주장에 대해 최남선은 근대에 들어 중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한일합병에 따라 조선왕조의 지배층이 소멸함에 기자전설은 미약해 지고 단군전설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고 강조하였다. 3.1운동으로 민족정신이 양양되자 그때까지 지배적 위치에 있던 기자전설은 무너지고 그 대신에 단군전설이 급부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나바는 만선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단군전설의 급부상에 대한 반대한다. 조선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일체가 만주세력의 압도하에 형성되어 조선만의 독자적인 것은 없었다는 주장이다.⁷³⁾

“檀君 否認의 論이 日本 學界에 出現하기는 이미 三十年의 歲月을 經하였고, 그 端緒는 那珂白鳥輩의 年少 好奇하고 立異 術能하자는 데서 생긴 것이지만, … 곱판내 나는 檀君僧造論을 끄집어내다가 朝鮮 歷史의 中에서 그 反證을 보이려한 今西 某와, 또 檀君 傳說의 造作을 目睹한 것처럼 高麗 中葉 어느 僧徒가 당시의 民族的 感情을 基本으로 하여 지어낸 것이라고 斷定한 三浦 某는 실로 다 日本의 最高 學部에서 敎職을 擔한 者로, 朝鮮 督署의 殘祿客任을 帶한 者들이었다. … 특히 그 開端者의 一人인 白鳥는 檀字로써 旃檀·檀越 등에 因한 것이라 하여 種種의 臆測을 試하였으나, 檀君의 檀이 古籍에는 壇으로 作하였음이 밝혀진 오늘날에는 그 立論의 根基가 自覆되었으니까 더 할 말 없을 것이다.” 74)

72) 최남선, 「檀君論」,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89쪽 재인용.

73) 이영화, 앞의 논문, 2010, 8쪽.

74) 최남선, 「檀君否認의 妄」,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77~78쪽.

최남선이 여기서 말하는 백조(白鳥)와 금서 모(今西 某)와 삼포 모(三浦 某)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를 말한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는 앞서 거론되었으나 미우라는 1918년에 발표된 「조선의 개국전설」⁷⁵⁾에서 예의 일인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단군전설에 대해 황탄의 설이라거나 고려시대에 창작된 것임을 주장한다. 또 미우라는 단군전설이 북한지방에서 생긴 것으로 한반도 고유의 한민족이 살았던 남한지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곧 식민지 조선의 단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군과 그 원형을 숭배한 사람들이 북방의 퉁구스족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인 단군론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남선이 1926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이상의 「壇君否認의 妄<文教의 朝鮮>의 狂論」에 대한 반박이 바로 앞선 이나바의 「단군설화」이었다. 이러한 단군논쟁은 1928년 최남선이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함으로써 확대되었지만 구로이타 가쓰미는 단군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 인물”이며 “편년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⁷⁶⁾고 주장한다. 결국 단군은 조선총독부 편찬의 『조선사』에는 실리지 않게 된 것이었다. 1934년에 개최된 조선사편수회의 위원회에서 최남선과 이나바 등이 아래와 같이 말하였던 것에서도 증명된다.

“최남선위원: 단군과 기자 항목은 조선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 편찬의 『조선사』에서는 그것을 수록하게 되어 있는 제1편의 割註나 頭註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나바 간사: 본회의 편찬방침으로 채택된 편년체 형식으로 그것을 집어넣을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구로이타 고문: 단군과 기자는 역사적 실재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인 것으로, 사상적·신앙적인 측면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상적·신앙적 측면에서 따로 연구하여야 할 사항이며 편년사로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⁷⁷⁾

최남선은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본문에 단군이 할주나 두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구로이타와 이나바는 『조선사』가 편년체 역사서술이라며 단군을 본문에 실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75)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第1卷 第5號, 史學地理學同攷會, 1918.

76) 北山祥子, 앞의 논문, 2021, 124쪽.

7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2008, 508~509쪽.

조선사편수회에서는 단군부정론자들인 이마니시 류와 이나바 이와키치, 미우라 히로유키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나바는 단군신화는 어디까지나 고려시대의 전설로 그 시기도 고려시대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소위 실증사학의 관점에서 단군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함께 부정하였던 것이다. 이나바에 있어 단군은 만선불가분의 입장에서만 필요로 했고 만선불가분론과 함께 조선민족의 만주진출을 주장했다. 만주에서 일어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를 포괄하는 동일민족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만으로 단군신화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나바의 이러한 단군인식은 1932년 만주에 만주국이 건립되고 실제로 만주와 조선의 불가분의 관계를 ‘만선일여(滿鮮一如)’로 더욱 강조하게 된다.⁷⁸⁾

이나바가 주장하는 만선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만주사로 중국과 맞선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사로 패배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고구려사는 조선사에서 분리하여 만주사로 설정되며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고려후기 창작물로 보는 것이었다. 일본인의 단군연구에 있어 일선동조론과 만선사관은 특수주의 역사인식의 전형적인 발로로 가장 비과학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⁷⁹⁾ 이러한 환경을 볼 때에 최남선의 조선사편수회 참여는 그의 민족주의 정신이 가장 활발할 때 참여한 것으로⁸⁰⁾ 이는 다소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반박을 가한 최남선의 단군론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에 발표된 최남선의 다음의 글이 증명된다.

“『三國遺事』에 檀을 壇으로 한 것은 반드시 글자가 잘못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寫音字로서는 檀·壇 어느 것을 取하든지 無妨하기 때 문에 … 字義拘礙論者의 向下的 紛議가 根據 없는 것임을 알것이다.”⁸¹⁾

이상에서 그동안 단군(檀君)의 단자(檀字)만을 고집했던 최남선이 ‘단(檀), 단(壇) 어느 글자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위 주장을 본다면 1930년대에 들어와 최남선 단군론은 일제의 일선동조론과 연계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78) 井上直樹, 앞의 논문, 2021, 65~67쪽.

79) 이영화, 앞의 논문, 2010, 28쪽.

80) 이영화, 「崔南善 檀君論의 전개와 그 변화」, 『韓國史學史學報』 5, 2002, 29쪽.

81) 최남선, 「檀君小考」,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344~348쪽.

다는 지적도 나온다.⁸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단군부정론에 일일이 반박하고 대응한 최남선의 업적은 지금까지 단군연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의 단군론에 대한 최남선의 반격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유일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시라토리와 이마니시, 이나바는 단군신화에 대한 고구려와 고려시대로 각각 창안설을 주장했지만 이는 『삼국유사』 단군신화의 승도망탄설과 함께 만선사에 경도된 것으로 그 역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5. 맺음말

근대시기 일본인의 단군론 중에 비교적 완성도 높게 작성한 인물은 다음의 세 사람이었다.

먼저 시라토리는 만선사의 창시자로 단군신화에 대해 후세 불교도의 창작이라는 승도망탄설을 주장하였다. 또 시라토리는 단군신화에 대해 본래 불교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라거나 또는 고구려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작담이라 주장했다. 시라토리는 단군 곧 왕검은 평양의 옛 이름이며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도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라 주장했다. 그러나 평양에는 왕검조선 관련 고고학 유물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왕검이 곧 평양일 수는 없다. 이 같은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대한 선담과 가작담 또 장수왕 때 성립하였다는 견해는 『삼국유사』와 불교와의 관련성을 염두해 둔 주장이라 볼 수 있다. 곧 일연이 승려인 관계로 인하여 단군신화와 불교를 유추시킨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대한 고구려 장수왕시대 창안설은 그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라토리의 이런 주장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단군비판이나 단군부정론의 기초가 되었음이 지적된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에 대해 말하기를 고려시대에 창안된 불설(佛說)로 현재의 한민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마니시의 단군론은 왕험성 신설을 주장한 것이며 왕험은 평양의 옛 지명으로 왕험은 평양에 기초를 둔 선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마니시는 단군은 본래 부여와 고구려, 만주와 몽고를 포괄하는 통구스 민족인 부여의 신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마

82) 윤승준, 「六堂崔南善의 ‘壇君論’ 研究」, 『인문학연구』 37, 2009, 321쪽.

니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일본인 연구자들은 단군조선의 실체는 부정하고 반면 기자조선 만을 언급한다. 조선의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 주체로서 고양된 단군을 쫓아내는 이마니시의 역사학은 분명히 만선사와 식민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다. 시라토리과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성립연대를 고구려와 고려로 한정지으면서 이후 단군신화에 대한 오독을 일으키는 물론 식민지 조선인의 유일한 단군론자인 최남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조선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선사의 입장에서 단군부정론을 펼쳤다. 이나바는 조선민족은 독자의 민족이 아니고 대륙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조선인에는 만주인의 피가 많이 섞인 것으로 보았다.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단군신화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단군신화의 가공성을 언급하는 한편 만선사의 입장에서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하였다. 이나바의 단군론은 민족적 신앙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나바가 주장하는 만선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만주사로 중국과 맞선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사로 패배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곧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고려후기 창작물로 본 것이지만 이런 견해는 만선사의 입장에서 본 것뿐이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의 단군론에 대한 최남선의 반격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유일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라토리과 이마니시, 이나바는 단군신화에 대한 고구려와 고려시대로 각각 창안설을 주장했지만 이는 『삼국유사』 단군신화의 승도망탄설과 함께 만선사에 경도된 것으로 그 역사적 타당성은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